

고려청자 학술세미나

「강진과 고려청자」의 위상과 발전방안

2008. 12. 18

강진군

고려청자 학술세미나 발표요지

「강진과 고려청자」의 위상과 발전방안

일시 _ 2008. 12. 18(목) 14:00~

장소 _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1층 소강당

주최 _ 강진군

1998-1999

2000-2001

2002-2003

2004-2005

2006-2007

2008-2009

2010-2011

2012-2013

2014-2015

2016-2017

2018-2019

2020-2021

2022-2023

2024-2025

2026-2027

2028-2029

2030-2031

2032-2033

2034-2035

2036-2037

2038-2039

2040-2041

2042-2043

2044-2045

2046-2047

2048-2049

2050-2051

2052-2053

2054-2055

2056-2057

2058-2059

2060-2061

2062-2063

2064-2065

2066-2067

2068-2069

2070-2071

2072-2073

2074-2075

2076-2077

2078-2079

2080-20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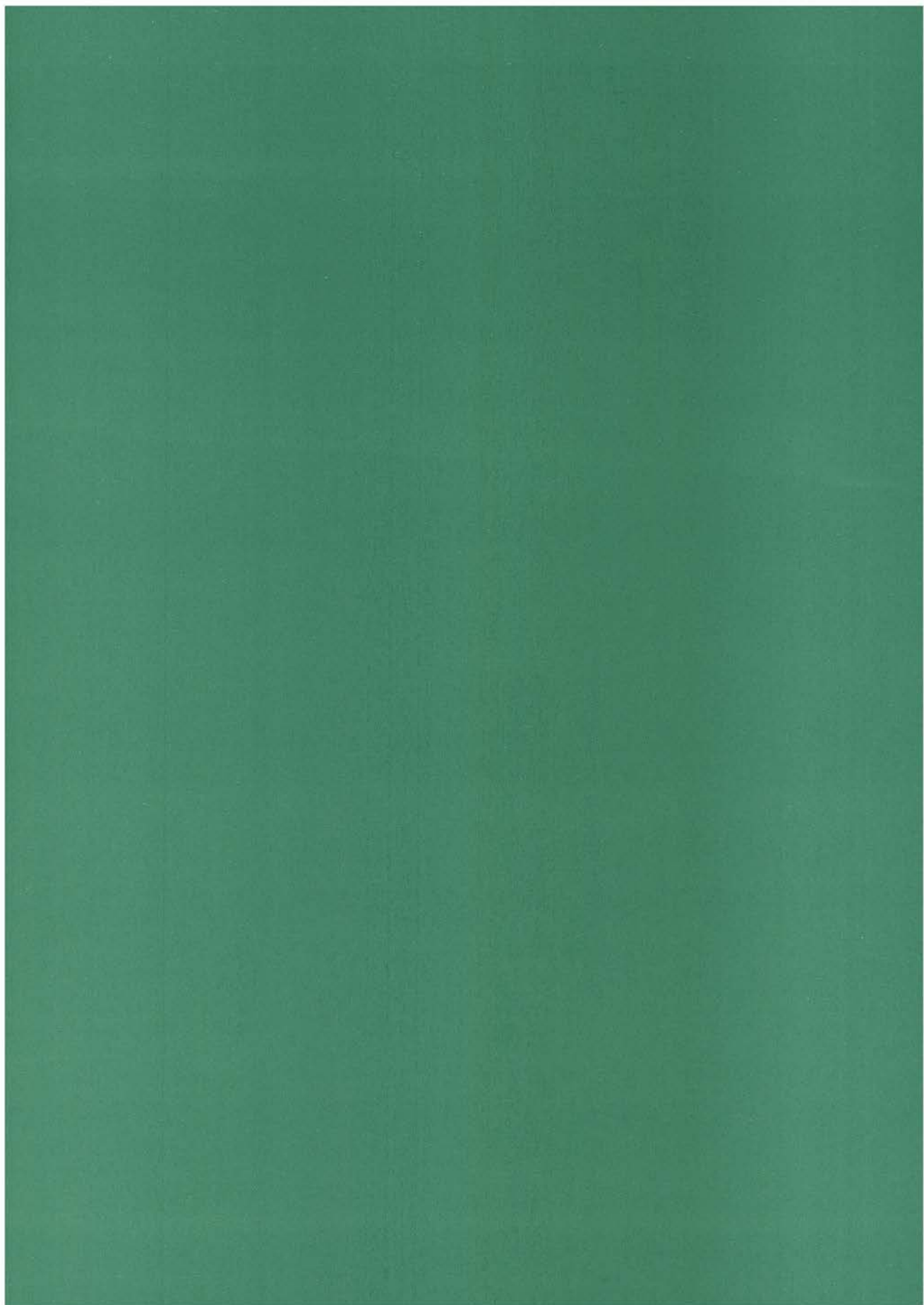
2082-2083

2084-2085

2086-2087

2088-2089

2090-2091



목차

1부 강진과 고려청자의 역사적 필연성

발표 1 고려청자의 변천과 강진

윤용이(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

발표 2 강진 청자의 역사적 배경과 발달

김영원(국립전주박물관 관장)

2부 세계화시대의 강진 청자

발표 3 강진 청자요지 보존과 강진 청자 발전방향

정양모(전,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발표 4 강진 청자와 세계 브랜드

이찬범(외교통상부 문화교류협력과장)

고려청자의 변천과 강진

윤 용 이(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

1. 고려청자의 성립과 발전, 쇠퇴의 변천과정 속에 강진청자는 어떤 역할과 위치를 차지하였을까?

고려청자(靑瓷)의 처음 제작은 970년대인 광종연간에 고려의 제도와 문물이 중국의 제도와 문물을 배우기 시작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고려의 왕실과 귀족은 중국의 청자를 좋아했고 그들이 많은 수요에 비해 수입은 한정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족에 따라 고려청자의 제작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당시 중국에서 청자 제작지로 유명했던 오월국과의 교류를 통해 처음에는 수입품으로 만족하였다. 그러다가 북송이 들어서고 오월국의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는 960~978년 사이에 청자 장인들이 주변의 용천, 경덕진요로 옮겨가 청자의 제작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기에 고려에서는 청자를 제작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으므로 이들에게 후한 대접을 제시했을 것이다. 그에 따라 월주요의 청자 장인들이 고려에 왔을 것이고 그들에게서 고려의 도기 장인들이 청자의 제작기술을 배웠을 것이다.

비색청자의 제작으로 유명한 오월국의 월주요는 그 질이 당시 절정에 달해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곳이다. 중국을 통일한 북송에 의해 978년 멸망하면서 급격히 쇠퇴하고 월주요의 기술이 970년대를 전후하여 중국 남북방으로 확산되어 각 지역에서 이와 유사하거나 그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청자들이 제작되게 된다. 고려에서는 970년대에 월주요의 청자 장인들을 후한 대접으로 데리고 와서 당시 청자 제작을 갈망하고 있었던 고려 왕실과 귀족층의 요

구에 따라 고려도기를 제작하던 장인들에게 중국 청자 제작기술을 가르쳐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자 ‘甲戌’ 명 접시편도 974년 시흥 방산동요에서 그 전부터 고려 도기를 제작하던 전통 위에 새로운 요업기술인 청자 및 백자의 제작을 시작하였을 때 남긴 흔적으로 추정된다. 또한 청자 굽바닥에 받치는 둥근 테반침(執圈)은 上品의 청자 제작에 필요한 가마 도구로 북송초의 월주요 청자에 보이는 특별한 요도구로 주목된다.

청자 주자의 길게 뺀 주구달린 주자편과 연판문이 양각된 것 그리고 탁잔, 발, 타구, 소호 등은 이 시기의 월주요 청자와 혼동이 될 만큼 닮아 있다.

따라서 고려청자의 제작시기와 장소는 974년을 중심으로 하는 광종연간에 수도 개경 부근의 시흥 방산동요에서 중국 오월국에서 온 청자 장인들의 지도로 고려 도기 장인들이 중국의 가마 축조기술인 40m×2.2m에 달하는 벽돌가마와 가마용구, 녹갈색 위주의 청자완, 발, 접시, 주자, 탁잔, 병, 호 등의 그릇이 제작되었으며 곧 이어 980년대에는 배천 원산리요에서 제작 활동을 시작하였고, 990년대에는 용인 서리요에서 제작이 이루어 졌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하겠다. 그리고 서산 오사리, 여주 중암리 등의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녹갈색계의 청자들이 벽돌가마에서 1020년경까지 계속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 오월국의 청자 장인들은 그 당시 오월국의 월주요의 가마구조인 길이 약 40m, 폭2.2m 7개의 가마 출입구의 벽돌가마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원통형 및 발형의 갑발, 갑발받침, 도침, 집권 등의 가마용구와 녹갈색의 청자 주자, 호, 완, 타구, 탁잔, 발, 접시 등 그 당시 중국 청자와 닮은 청자를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의 벽돌가마와 가마용구, 청자편들이 중국의 것과 유사하고, 왕공탁 등 장인들의 이름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 970년, 980년대에 중국 청자 장인들에 의해 청자 제작기술을 받아들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청자 제작의 기술을 배운 후 다음에 진흙가마로 바꾸어 축조한다든지, 40m의 가마를 10m로 줄여 사용하면서 청자 제작기술을 발전시켜 갔던 것으로 보인다.

993년부터 1019년까지 26년 동안 거란(요)의 침입은 개경까지 파괴되어

나주로 피신 간 현종에 의해 제2단계의 청자 제작이 이루어지는데 양질의 흙이 나고 땀감이 무성하며, 배로 운반이 편리한 강진 용운리, 고창 용계리 일대에서 새롭게 청자제작을 시작하게 된다.

1020년대에 새롭게 시작된 제2단계의 청자제작은 선햇무리굽완 청자에서 전형적인 햇무리굽완 청자들로 고려화 된 청자 기명들을 제작하게 된다. 녹갈색 유색의 선햇무리굽 청자에서 녹청색 유색의 햇무리굽 청자로 바뀌게 되며, 40m의 벽돌가마에서 20m~10m 크기의 진흙가마로 가마축조가 바뀌게 된다.

강진 용운리 일대와 삼흥리, 해남 신태리, 고흥 운대리, 고창 용계리, 반암리 등에서 햇무리굽완을 비롯한 새로운 청자제작이 시작되고 청자와 함께 백자, 흑자, 도기의 제작이 활발해 진다. 접시, 발의 경우 굽다리가 높고 외반된 것도 있으며 구부는 외반된 것이 특징이다. 드물게 음각, 양각된 연판문완, 잔, 합 등이 발견되나 대부분 무문인 것이 특징이다.

11세기 후반은 문종·선종의 시기로 중앙집권적인 귀족정치체제가 확립되는 시기로 지방 호족으로부터의 왕권의 안정과 귀족정치의 확립, 학문의 발달, 북송과의 교류를 통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요(遼)와도 평화정책을 유지하고 북송과도 문물의 교역이 이루어졌으며, 국가 기반의 안정 속에 귀족문화의 일환으로 고려청자의 기반이 이루어 졌던 시기였다. 이처럼 11세기는 청자를 비롯하여 백자, 흑자가 함께 제작되었으며, 이때의 대표적인 도자는 햇무리굽완으로서 유색에 있어 숙련을 거듭했으며 회백색의 내화토 받침으로 얇게 받쳐 구웠다. 현종연간의 강진 등에서 새로운 청자제작은 11세기 후반 문종연간에 이르러 강진의 수많은 가마에서 양질의 청자제작이 꽃피게 된다.

2. 현재 강진 대구면 일대에는 200여개소에 달하는 청자 및 도기 가마터가 분포되어 있다.

12세기 전반인 예종연간에 또 다시 새로운 자기소의 개혁에 따라, 왕실 및 중앙관청 소용의 양질 청자를 주로 제작하여 공급하는 강진 사당리요가 본격

적인 청자 제작에 들어가 비색청자(翡色靑瓷)라는 뛰어난 청자를 제작하게 되고, 지방관청 및 사찰, 토호세력의 요청에 따라 해남 진산리 등에서 조질청자(녹청자)의 제작이 본격화된다. 이들 양질 및 조질청자의 기형과 문양, 제작방법은 대체로 공통된 모습으로 이러한 도자의 양상은 12세기 후반까지 그대로 이어지며 발전되었다.

고려의 귀족정치는 12세기전반 예종(1106~1122), 인종(1123~1146) 연간에 이르러 완성되고 고려의 문화는 황금기를 맞았다. 이들은好文의 왕들로서 관학을 진흥시키고 궁내에 청연각과 보문각 등의 학문연구기관을 설치하여 文風을 크게 일으켰다. 예의 격식 등 유교적인 제도를 정하고 內治에도 힘을 기울였으며 중국 北宋과의 문물교류에서 새로이 받아들인 중국도자의 기형과 문양 등을 고려청자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기에 高麗靑瓷 역시 발전을 거듭하여 드디어 翡色靑瓷가 만들어졌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청자 자료로는 고려 인종1년(1123) 송나라 사신의 수행원으로 고려의 개경에 한달 동안 머물며 고려의 제도와 문물을 돌아보고 귀국하여 1124년에 저술한 서공의 견문록인 『宣和奉使高麗圖經』에 실려 있는 기록과 1146년에 돌아가신 인종의 長陵출토의 일괄 청자들이 있다.

1123년 당시의 고려청자의 유색은 월주요 청자의 유색과 비슷했음과 1110년에 북송의 관요(官窯)로서 제작되던 여요(汝窯)의 청자 器皿과 대개 비슷하다고 한 것은 당시 고려청자의 기명이 매우 단정하며 정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여요산의 특색인 규석반침으로 정교하게 제작하기 시작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하겠다. 이러한 1123년경의 고려청자는 비색청자의 시작이었으며 그 후 1146년 인종(仁宗)의 장릉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지는 청자참외형화병 등 일괄 청자들과 1157년 청자기와와 함께 출토된 청자의 명품들에서 비색청자의 완성된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들은 담녹청색의 청자유가 고르게 시유되어 발색이 깊고 순수하며 유병렬이 없다. 태토는 정제되어 있고, 기형은 적정한 비례를 갖고 있다. 문양은 드물며 굽다리에는 규석반침으로 정교하게 구운 흔적이 남아있다.

이들은 문양이 없으며, 기형에 있어 정제되어 있다. 깔끔하고 이지적이며

순수하다. 이러한 청자 기형은 북송대의 경덕진요산의 청백자주자 및 승반, 참외화병, 화형접시, 탁잔, 합과 정요산의 매병, 완, 발, 병 그리고 여요산의 탁잔, 접시, 병 등에 닮은 예가 있어, 고려 도자가 배웠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그 형태는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달라 그 중에서 고려인들의 기호에 맞는 것을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완, 접시의 굽다리는 定窯産과 景德鎮窯産, 汝窯産의 器皿을 본받고 있음이 주목된다. 굽 안바닥 등 규석받침을 받쳐 굽는 것은 汝窯로부터 배운 것으로 이후 13세기의 고려청자의 제작에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덕진요산의 완에 나타나는 경사진 굽다리와 낮은 굽 안바닥에 보이는 형태는 고려청자의 완에 그대로 나타난다. 또한 定窯의 매병, 완, 병의 기형이 이 시기 고려청자에 나타나고 있다.

12세기 후반 의종(1147~1170), 명종(1171~1197)년간은 고려 귀족사회의 절정기였으며, 반면에 전환시기였다. 의종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1170년에 일어난 武臣의 난으로 인한 고려귀족사회, 지배세력의 변화로 고려사에 있어 하나의 큰 전환기에 속한다. 문신귀족 중심에서 무신귀족 중심으로 바뀌면서 고려사회 전체에 동요를 가져온다. 농민들의 난, 노비들의 난으로 이어지며 무신들의 권력쟁탈과정으로 점철되는 사회의 모습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시기의 사회상이 고려도자에 점차 나타나고 있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의 하나이다.

12세기 후반 도자에 기준이 되는 것으로 1157년에 제작된 청자기와(靑瓷器)에 관한 기록이 있다. 『고려사(高麗史)』 세가(世家)권18, 위종11년(1157) 4월 병신(丙申)조에 고려 궁궐내에 양이정(養怡亭)이라는 정자의 지붕을 청자기와로 덮었다는 기록이 있다. 1157년 청자기와의 기록과 부합되는 유물이 1927년 개경 만월대 고려 궁터에서 수습된 청자기와 편들과 1964년, 1965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굴 조사한 강진 사당리 가마터에서 출토된 다양한 청자기와편들로 입증되었다. 이들 청자기와편들은 청자양각 모란문수막새, 청자양각당초문암막새를 비롯하여 청자음각모란당초문이 꼭 차게 시문된 것들로서 약간의 상감기법이 시문된 청자편들과 함께 조사되었다. 이들 청자기와편들은 『고려사』의 기록과 개성 만월대 고려궁터 그리고

장진 사당리 가마터와 부합되는 1157년을 전후로 하는 가장 기준이 되는 자료들로서 당시 청자의 양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예이다.

문양은 굵은 음각선으로 비스듬히 넓게 시문하여 마치 양각처럼 표현되는 모란당초문을 꼭차게 시문하였으며, 양각당초문의 경우도 잎맥까지 표현될 정도로 정교하고 예리하다. 청자유색은 담녹색이 짙어져 가고 있으며 양각수법에 의한 모란문도 만들어지고 있다. 규석받침과 내화토받침으로 받쳐져 제작되었다.

이러한 靑瓷瓦의 문양과 유색을 현존하는 청자들과 비교해 보면 투각기법과 함께 사용된 벼개도 있어 투각청자의 제작이 이와 가까운 시기에 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 문양의 청자에 약간의 白象嵌기법이 시문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청자음각모란당초문완> <청자음각모란당초문발> 등이 그러한 예로서 구연의 일부분이지만 당초문대나 뇌문대에 일부 나타나고 있으며 청자기와의 요지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청자기형이 매우 다양해지고 문양 역시 화려해진다.

『고려사』의 기록과 출토지, 제작지가 부합되는 가장 기준이 되는 이 청자기와편 속에 투각청자, 상형청자의 제작시기와 특이한 음각, 양각의 청자 그리고 상감청자의 제작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것들이 있음은 매우 주목할 점이다. 그리고 靑瓷瓦에 나타나는 넓게 깎은 음각기법의 시문방법은 定窯産의 劃花紋白瓷에 많은 것으로 보아 고려청자 장인들이 그로부터 힌트를 얻었을 가능성이 많다.

사치와 향락을 좋아했던 의종(1147~1170)연간에 화려한 청자로서 음각, 양각, 투각, 상형, 상감, 철화, 백화수법이 채택되기 시작하였음은 충분히 가능한 사실로 실제에 있어 고려청자의 뛰어난 명품들이 의종년간에 제작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2세기 후반으로 비정되는 지방산의 조질청자로서 완도 해저에서 출토된 30,672점에 달하는 조질청자(녹청자)를 들 수 있다. 1983년, 1984년 발굴 조사된 완도 해저출토의 도자기의 대부분은 청자였으며, 녹갈유도기들과 회흑색의 도기시루, 호 등이 포함되었다. 이들 청자들은 철화기법의 매병과

장고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무문의 청자들이었다.

이들 청자의 유색은 녹갈색, 암록색, 녹청색이었으며 이중 녹청색의 청자 유색이 많이 있다. 이들 유는 태토에 얇게 시유되었고, 태토에는 모래 등의 잡물이 섞여 있어 조잡하였고 거칠게 보였다. 굽바닥은 회백색의 내화토를 4~5개소 얇게 받쳐 포개 구운 것이 대부분으로 발과 접시였다. 완의 경우 포개지 않고 갑발에 넣어 구웠으며, 굽의 형태는 대마디굽의 특징을 갖고 있다. 매병, 광구병, 호의 굽은 희고 가는 모래를 받쳐 구웠다.

이들 청자의 기형은 대부분 발, 접시, 완 들로 3만점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파손된 것을 합치면 3만2천여점에 달한다. 발과 접시의 경우 구부가 밖으로 벌어졌고, 동체는 S자곡선을 이루었으며 기벽은 얇고 문양은 거의 없다. 이러한 청자의 발이 2만점, 접시류가 1만점을 차지하고 있어 발 2점과 접시1점이 한세트로 사용되어 밥과 국, 반찬을 담는 것으로 생활용의 청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청자완들은 전형적인 햇무리굽완보다 작아지고, 굽의 폭이 좁아졌으며 소위 햇무리굽완의 변형된 후햇무리굽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되었다. 1,000여점에 달하는 이들 완들은 차를 담아 사용하던 다완으로서 용인 서리 가마터의 퇴적층조사에서 전형적인 햇무리굽완이 출토되는 윗층에서 발견되는 후햇무리굽 층으로 그 제작시기를 12세기 후반으로 추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해남 진산리요지군과 인천 경서동요지, 강진 계율리요지 등에서 발견되는 후햇무리굽완이 나오는 층으로서 특히 평저접시와 철화초문의 편들, 경사진 도지미, 그리고 매병, 장고, 광구병편이 함께 발견되고 있다.

완도출토 철화매병들은 구부가 각이지고 견부에서 벌어졌다 서서히 좁아진 초기 매병들로 1157년 청자기와가 제작된 시기의 매병과 형태가 닮아있어 시기구분의 근거가 되며, 철화기법이 시작되는 시기의 작품으로 주목되는 예들이다.

이처럼 12세기 후반은 양질의 강진산 비색청자위에 음각, 양각, 투각의 화려한 기법과 함께 상감기법, 철화기법이 새로이 출현하고 있다. 또한 전국 각 지역의 요청에 따라 수많은 청자가마가 설치되면서 생활용의 발, 접시,

병, 완, 위주의 조질청자 제작이 확산된 시기였다. 상감기법, 철화기법이 쓰이면서 고려청자의 양상이 다양하게 발전된 시기였다.

3. 13세기 전반은 1196년 최충헌에 의해 무신정권이 안정된 후 최우, 최항, 최의에 이르는 4대 62년간 최씨 정권이 확립된 무신집권의 시기로 희종, 고종(1214~1259)년간이었다. 이 시기는 동아시아에 있어서 몽골세력의 흥기로 일대 변동이 일어나 차츰 고려와의 관계에 불화가 감돌면서 1231년에 드디어 몽고의 침입이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최우 정권은 단호히 항쟁할 것을 결의하고 1232년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항쟁을 시작하여 1259년 강화가 뺏어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오랫동안 걸친 몽고의 침입이 되풀이되었지만 고려인들의 끈질긴 항쟁이 계속된 시기였다. 특히 남송과의 국교단절로 인한 중국 도자문화의 자극이 없어지고 그로 인해 고려도자 특유의 기형과 문양이 발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상감청자의 발전은 외부의 문화적 자극이었고 따라서 고려자체내의 요청에 따른 발전의 양상으로 풀이되며 고려화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청자자료들로는 태안 대섬 해저출토의 청자들과 군산 비안도 해저출토의 청자들과 보령 원산도출토 청자편들 그리고 1237년 회종의 석릉출토 청자들과 1239년 곤릉출토의 청자들이 있다. 이와 함께 강진 용운리 10-2호 가, 나층의 청자편들을 들 수 있다.

태안 대섬 해저출토 고려청자들은 2007년, 2008년 2차에 걸쳐 총 23,462점이 발굴 인양되었다.

이들 청자들은 기형이 다양한 가운데 발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기벽은 얇고 예리하다. 문양은 발과 접시에 많이 시문된 음각의 앵무문, 양각의 모란 당초문 등이었으며, 철화의 초문이 시문된 통형잔 등이 있다. 번조 방법은 회백색의 내화로 빛은 받침으로 세 곳, 네 곳을 굽다리나 안바닥에 받쳐 구운 것이 일반적이었다.

제작시기는 13세기 초인 1200년 초에 제작되었으며 1220년대의 군산 비안도 해저출토 청자들과 가장 가까웠다.

제작산지로는 목간에 묵서된 강진(탐진) 일대로서 강진 용운리 10-2호 요지를 유력한 제작산지로 추정할 수 있다.

군산 비안도 해저출토 청자의 기형은 발, 접시, 잔, 합, 통형잔, 뚜껑, 완 등으로 다양하였으며 이중 발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발은 구부가 내만 되었고 동체는 둥글게 곡선을 이루었다. 문양은 내외면에 없는 것과 외면에 음각으로 연판문을 새긴 발의 예가 발견된다. 가장 많은 것은 내측면에 음각의 앵무문을 대칭으로 시문한 예들이다. 외면을 양각의 연판문으로 시문하고, 내면을 양각의 모란꽃과 잎을 새긴 것도 있다. 유색은 녹갈색을 띠었으며, 기벽이 얇고 광택이 있다. 굽다리에는 점토가 섞인 내화토 빚음 받침을 네 군데 받쳐 구운 흔적이 있다. 접시가 가장 많으며 음각의 연판문이나 앵무문을 새긴 것들이 대부분이다. 청자통형잔은 크고 작은 것과 뚜껑이 없는 것도 섞여 출토되었다. 원통형의 직립된 것으로 외면에 음각 및 연판문이 새겨졌다. 청자합이 음각과 상감의 문양이 시문되어 발견되었다. 음각국화문, 상감국화문, 모란문이 시문되었으며, 초기의 흑백 상감문양이 시문된 예들이 특징적이다. 비안도 해저출토 청자들은 1237년 석릉출토의 청자들과 가까운 시기인 1220년 전후의 것으로 추정되며 부안 유천리 7구역 가마군에서 제작되어 개경의 왕실 및 관청소용의 청자로 조운선에 의해 운반되다가 풍랑으로 침몰되었던 것들로 추정된다.

1230년대로 추정되는 보령 원산도 해저출토 청자편들은 접시, 발, 완, 잔, 잔탁, 병, 주자, 호, 승반, 합, 향로, 베개, 의자, 연적, 약봉, 기대 등 매우 다양하며 질에 있어서 뛰어난 청자편들이다. 이들 청자는 생활용기, 의례용, 장식용의 특수용기로 구분된다. 생활용기로는 접시, 발, 완, 잔이 있고 특수용기로 향로, 주자, 병, 합 등 최상의 양질청자로 대부분 규석받침으로 받쳐 제작되었다. 문양은 음각앵무문, 연판문, 양각의 국화문, 모란문, 연당초문이 시문되었다. 병은 매병, 과형병, 장경병, 정병, 유병으로 매우 다양하여 음각의 연화절지문, 상감운학문, 상감유로수금문, 상감모란문, 매죽문, 인물문이 확인된다. 향로는 양각의 도철문이 새겨진 방형향로와 원앙형향로 등이 발견되었으며, 청자동녀형연적편도 출토되었다. 이들은 13세기

전반 강진 사당리 가마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개경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침몰된 것으로 보인다. 매우 뛰어난 양질의 청자가 이 시기에 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아울러 13세기 중후반경의 청자들로 추정되는 부안 유천리요산 고려청자편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1920년대 이후 조사되어 1958년 수집된 도판들로서 이화여대박물관에 의해서 1983년에 전시된 자료들이다. 13세기 전 시기 걸치는 것으로 매우 다양한 기형과 문양을 보여주고 있다.

음각, 양각의 병, 접시, 발, 매병편과 투각의 대, 의자편들 그리고 상감기법으로 완성된 도판, 매병, 호, 병, 탁잔, 주자, 합, 완, 화분, 접시 등과 뚜껑, 장고, 향로, 약연, 약봉, 유병, 사이호 등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고려백자도 만들어져 매병, 병, 완과 발, 접시와 잔, 잔받침과 승반, 향로와 대합, 장고편이 청자와 같은 형태로 제작되었다.

청자의 제작기법으로 무문의 접시, 음각연화문화분, 양각연판문완, 투각연당초문돈, 상형참외모양주자, 철화모란당초문장고, 철백화당초문화분, 상감운학문매병, 상감모란문동채화분 등 거의 모든 기법이 다 망라되어 다양하게 제작되었으며 이중 음각과 양각기법, 상감기법의 청자가 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청자 중에는 형태가 동일하며 음각과 상감기법의 문양이 같은 기형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하겠다.

이것은 음각기법과 상감기법이 함께 널리 같은 시기에 거의 모든 기형에 그대로 제작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1237년 석릉출토의 청자들이나 1255년 새로 수축된 명종 지릉 출토의 청자들이 음각청자와 상감청자 그리고 철백화청자와 함께 발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보령 원산도 해저출토의 1,000여편의 청자들 속에서도 음각과 상감의 청자가 같은 기형에 시문되고 있으며, 상형청자와 철화청자, 철백화청자가 함께 발견되고 있어 같은 현상을 보여준다 하겠다.

특히 상감기법으로 완성된 도판들은 장방형으로 국화와 모란, 운룡, 운학, 포류수금문이 시문된 부안요지 특유의 것이 었으며 마름모꼴, 옷걸이꼴 형태도 있다. 장고에 음각, 상감 철화의 모란당초문이 시문된 예들과 청자화분

들, 청자투각연당초문돈, 85cm에 달하는 청자상감용도문매병과 청자상감인 물문매병 그리고 청자종과 피리 등은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진 진귀한 청자들이었다. 상감기법이 무르익은 운학문, 국화문, 모란문 포류수금문, 연화문, 여지문, 인물문이 시문된 매병, 주자, 탁잔, 화분, 합, 병, 발, 접시 등의 상감청자편들이 출토되어 13세기 전후반을 중심으로 하는 상감청자 전성기의 산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매우 드물게 산화동을 안료로 시문한 동채청자편들과 산화철로 그린 철화청자, 백토니와 자토니로 그린 철백화청자편들로 출토되었다.

부안 유천리요 청자들은 1237년 희종의 석릉과 1255년 명종 지릉출토 청자들 그리고 1271년 진도 용장성출토 청자들과 매우 닮아 있어 13세기 전후반을 중심으로 하는 시기의 청자들로 왕실과 사찰의 수요에 따라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청자의 유색은 녹색이 짙은 청자유와 투명한 청자유가 함께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기벽은 두꺼워져 가고 있었다. 굽다리의 규석받침도 커져가고, 큰 기형에는 점토가 섞인 내화토 빛을 받침으로 받쳐 구운 예가 많아지고 있다.

최씨 무신정권에 의해 다스려지고 몽고의 침입, 원 간섭하의 고려로 이어졌던 이시기에 상감청자로 대표되는 고려청자는 기형과 문양에서 중국적인 요소가 사라지고 고려적인 기형과 유색, 문양의 세계가 확대되어 전개되어 가는 것이 부안 유천리요산 고려청자에 보이는 고려화(高麗化)의 청자로서 주목되는 것이다.

4. 14세기 전반은 원(元)에 세력의 배경을 둔 권문세족에 의해 이끌어지던 시기였다. 무신정권이 붕괴된 후 대두된 이들 권문세족은 고려 후기의 지배 세력으로서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정치권력을 장악하였으며 경제적으로는 광대한 농장을 소유하는 대토지 소유자였다.

고려와 원과의 친밀한 관계는 왕실과 지배층을 중심으로 원(元)의 법속, 의복, 변발, 혼인 등을 통해 깊어갔으며, 원으로부터 성리학이 수용되고 새로운 불교(라마교)까지 받아들여진다.

귀족불교로서 이 시기의 뛰어난 고려불화의 제작과 고려사경의 유행으로 화려한 일면을 간직한 이 시기에 고려청자에도 원(元)의 자기의 기형과 문양이 널리 반영되기 시작한다.

이처럼 권문세족에 의한 고려불화, 고려사경이 제작된 시기에 상감청자도 화려한 장식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원의 백자, 청화백자 등에 보이는 연화당초문, 쌍봉문, 파도문, 파도용문, 어문 등이 고려상감청자에 나타나며 길주요계 도자에 보이는 굵은 음각선으로 간결한 여의두문, 연화문 등의 문양을 나타낸 후 철유가 시유된 철유자기 등의 원(元)의 기호에 맞는 도자도 제작되었다.

기형에 있어 매병이 줄어들고 측면이 편평한 편호류가 많이 만들어지며 대접은 저부가 깊어지고 각이진 접시류가 많아졌으며 구부가 내만된 대접이 많아진다.

기벽이 두꺼워지고 유색은 담청색, 회청색계로 바뀌었다. 상감의 문양은 산만한 구도로 되거나, 필치가 조잡해지고 동일문양의 반복사용으로 도안화되기 시작하며 종속되는 문양에는 이미 인화기법으로 문양을 시문하는 방법이 널리 보이기 시작하였다.

포류수금문, 운학문, 여지문, 국화문 등이 그대로 쓰이고 있으나 간략해지고 운문이 우점문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굽다리는 두껍고 굽 안바닥에 굵은 규석받침이나 모래받침으로 받쳐 구워진다.

이 시기로 비정되는 간지의 명문이 있는 접시, 대접의 예를 보면, 1330년으로 추정되는 <청자상감포류수금문경오명대접>은 내만된 낮은 대접으로 내저에 간지명을 흑상감으로 표기하고 그 주위에 여의두문대를, 내 측면에는 대칭으로 연못가의 버드나무와 갈대, 오리를 배치하였고 외면에는 2중원 내의 국화를 네 곳에 배치하고 그 이외면을 당초문대로, 위아래에는 초문대와 연판문대를 간결하게 나타내었다. 유색은 회청색계의 청자류가 얇게 시유되었다.

이러한 대접 외에도 내귀가 움푹 꺾인 반원형의 대접, 각이진 접시 등에 이러한 간지명 청자가 나타난다.

기사(己巳)명은 1329년, 경오(庚午)명은 1330년, 임신(壬申)명은 1332년, 계유(癸酉)명은 1333년, 갑술(甲戌)명은 1334년, 임오(壬午)명은 1342년, 정해(丁亥)명은 1347년, 을미(乙未)명은 1355년으로 추정된다.

특히 강진 사당리 요지에서는 이러한 간지명상감청자가 거의 다 출토되고 지정(至正)명(1341~1367)과 함께 정해(丁亥)명(1347) 대접편이 출토되고 있으며, 문양의 포치가 간지명청자편들과 유사하므로 14세기 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1290년대의 <청자상감원토문화금편호>에 보이는 특이한 연당초문과 간지명상감청자의 연당초문과의 비교, 그리고 운학문의 우점과 굽의 비교로 보아도 종래의 13세기 후반으로 보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14세기 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굽다리에 커진 규석받침과 모래받침으로 받쳐 구워진 굽이 널리 쓰이기 시작한다.

14세기 후반은 원·명(元·明)의 교체가 이루어진 격동의 시기였다. 지배세력인 권문세족에 도전하는 새로운 사회세력이 대두되었는데 이들이 신흥사대부였다. 이들은 권문세족이 정치권력독점과 농장 확대에 따른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을 시정하기 위해 개혁정치를 주장하였다. 이들은 지방향리 출신이 많았는데 점차 중소지주로 성장하여 과거를 통하여 중앙의 관리로 진출하여 왕권강화를 추진한 공민왕·우왕대에 그들의 개혁정치를 추진해왔으며 결국 신흥무인들의 협력으로 고려왕조를 대신하여 조선왕조를 이루게 된다.

40여 년간에 걸친 왜구의 극심한 침략과 홍건적의 침입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었으며, 특히 왜구의 침입으로 인해 해안가 50리(20km) 내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지경이었다.

이 때문에 조운이 끊겨 고려정부는 재정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바닷가 농민들은 계속된 약탈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등장한 신흥사대부들의 요구에 따라 도자에 있어서 실생활에 널리 쓰일 수 있도록 튼튼하고 실용적인 그릇의 다량생산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

신흥사대부들은 성리학을 그들의 생활이념으로 삼으면서 실용적이고 실질

적인 생활을 추구하게 된다. 유가·철기 대신에 사기(沙器)·목기를 전용하라는 『고려사』의 기록처럼 생활용의 청자를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이들의 주장은 때마침 왜구의 침략으로 해안가에서 사람이 살 수 없고 해로를 통해 개경에 왕래하던 세선(稅船)이 왜구의 습격을 받아 조운이 막히므로 육로를 통한 육운(陸運)이 요청되던 때였다.

강진·부안의 해안가에 위치해 있던 이 시기의 청자 가마들은 왜구의 침략으로 파괴되고 새로운 지배층의 견해와 요구에 따라 고려시대 청자제작의 중심지인 강진·부안요 대신 전국 내륙지방의 수많은 가마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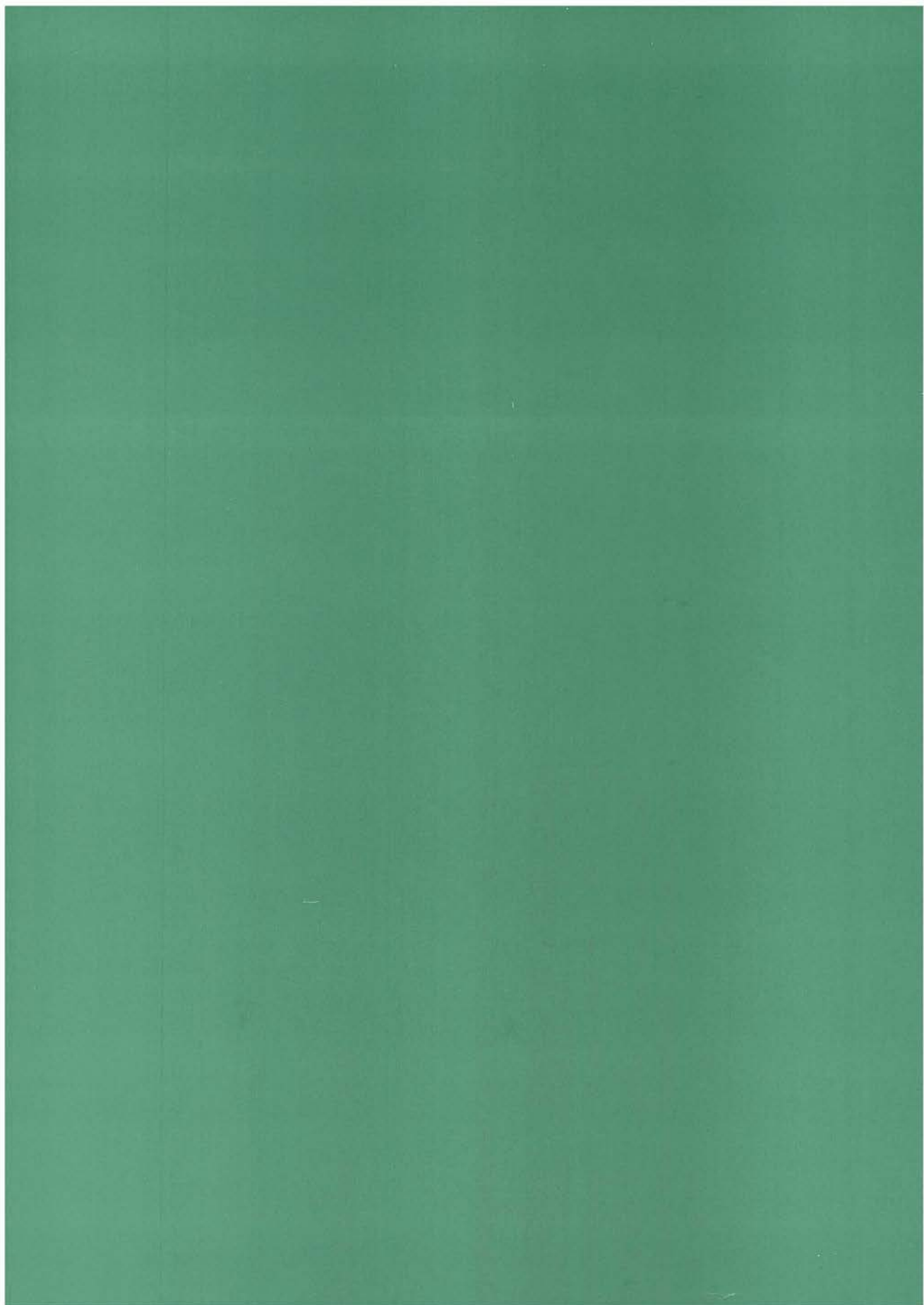
이러한 변화가 확대되기 시작한 1380년대부터 1424년에서 1432년 사이에 조사되어 『세종실록지리지』에 수록된 전국의 139개소의 자기소의 가마들이 이들이다.

1365년의 <청자상감연당초문정릉명대접>, <청자상감연화국화문정릉명통형잔>은 간지명 상감청자보다 문양이 간략해져가고 있으며, 모래받침과 태토비집 받침으로 번조가 바뀌고 있음을 알려준다.

1996~1997년도 무안 도리포 앞바다에서 발굴 인양된 600여 점의 상감청자대접·접시등은 1370년 전후의 간략해져가는 상감청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강진 사당리 10호 요지출토의 청자들과 기형, 문양 등이 닮아 주목되었다.

1388년의 <청자상감원문대접>역시 간략해진 상감문양의 대접으로 굵은 모래받침으로 구워졌으며 14세기 말 전국의 수많은 가마에서 발견되는 것들과 닮아 있다.

이처럼 고려청자의 성립과 발달에 있어, 강진은 11세기 전반부터 청자제작이 시작되었으며, 12세기 전후반에는 비색청자의 제작지로서 왕실용의 청자가 제작되어 그 명성을 널리 알리었다. 13세기 상감청자의 전성기에도 뛰어난 작품을 부안 유천리와 함께 제작하였으며, 14세기 전반까지 활발히 제작활동을 벌이다 14세기 후반 왜구의 침략으로, 해안가의 강진, 부안요 대신 전국 내륙지방으로 옮겨 가마가 설치되면서 청자 제작의 중심지로서 위치를 잃게 된다.



강진 청자의 역사적 배경과 발달

김 영 원(국립전주박물관 관장)

머 리 말

고려 청자는 통일신라(676-918년) 말, 9세기 중엽부터 제작되기 시작하여 고려(918-1392년)시대에 전성기를 맞이한 청자를 말한다. 초기에는 중국 자기의 영향을 받아 형태와 문양 장식 등에서 중국적인 양식이 뚜렷했으나, 점차 고려 청자 고유의 특징이 나타났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청자 유색이 머금고 있는 은은한 비색, 인물과 동식물을 본 뜬 각종 형태, 문양을 나타낸 상감象嵌 기법이 고려 청자 고유의 세 가지 특징이다.

이와 같은 고려 청자 고유의 양식은 강진에서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양식 뿐 아니라 생산량에서도 강진은 고려 청자를 대표한다. 그리고 가마의 운영 체제와 시기도 다른 지역과는 분명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강진 청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생각에서 심층적인 분석을 소홀히 한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강진 청자와 가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하여 강진 청자의 양식적 특징, 강진 가마의 발생 배경과 발달 과정, 강진 가마의 성격 및 요업 시기, 강진 청자와 왕실 청자의 관계, 부안 및 타 지역 가마와 비교, 중국 가마와의 관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도자사에서 강진이 갖는 특별한 역사적 의미와 위상이 도출될 것이다.

1. 강진 청자의 발생

1) 중국 자기의 영향과 한국 자기의 발생

한국에서 청자가 제작되기까지는 자체적인 토기의 제작 기술이 바탕이 되었으나, 고화도 유약을 입힌 자기의 시작에는 중국 자기가 촉매 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중국 고화도 자기의 영향은 삼국시대 초기로 백제 한성시기에 수입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방이동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灰釉系 黑褐釉錢文陶器片이 중국과 교류를 시사해 주는 초기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흑유도기편은 『三國史記』百濟本紀에 백제 근초고왕 27년(372) 때 최초로 대중교섭이 시작되어 중국 핏에 사신을 보내 朝貢했다는 기록보다 이른 시기에 백제와 중국의 교류를 확인시켜 주는 유물이다. 또 풍납토성에서도 중국 자기편들이 출토되어 한성시기에 양국의 교류를 강하게 뒷받침해준다.

또 충남 천원군(천안) 화성리마을 고분에서 출토한 중국 청자반구병, 江原道 原城郡 富論面 法泉里고분에서 출토한 중국제 청자양형기, 웅진시기의 무령왕능에 부장된 중국 청자, 백자, 흑유 9점 등 이미 백제부터 중국 西晉(265-316), 東晉(317-419)을 비롯한 六朝時代, 隋(581-617), 唐(618-907)의 자기가 수입되어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¹⁾

이후 통일신라시대에는 중국 당 자기가 전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량 수입되었다. 익산 彌勒寺址, 경주 皇龍寺址와 雁鴨池에서 출토된 중국 자기들은 막대한 양과 뛰어난 품질로 유명하다. 그 외에도 경주 拜里, 東川洞,

1) 金元龍, 「原城郡 法泉里 石槨墓와 出土遺物」, 『考古美術』 120, 1973. 12; 三上次男, 「漢江地域發見の四世紀越州窯青磁と初期百濟文化」, 『朝鮮學報』 81, 朝鮮學會, 1976, pp. 357-380; 小田富士雄, 「越州窯青磁를 伴出した 忠南의 百濟土器」, 『百濟研究』,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編, 知識産業社, 1982, pp. 285-298; 權五榮, 「4세기 百濟의 地方統制方式 一例」, 『韓國史論』 18, 서울大學校 人文大學 國史學科, 1988. 2, pp. 3-28; 李鍾玟, 「百濟時代 輸入陶磁의 影響과 陶磁史的 意義」, 『百濟研究』 27, 忠南大學校百濟研究所, 1997, pp. 165-194; 김영원, 「百濟時代 中國陶磁의 輸入과 倣製」, 『百濟文化』 27, 公州大學校 百濟文化研究所, 1998.

義城 등지에서도 중국 자기가 출토되었다. 이렇게 한국 유적에서 출토된 중국 자기들은 한국 자기들과의 영향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다.

특히 통일신라시대에 수입된 중국 당 자기는 한국 청자, 백자의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경기도 일대의 시흥 방산동, 여주 중암리, 용인 龍仁 서리西里 등지의 청자, 백자에서 중국 자기의 특징이 강하게 나타난다. 중국 자기의 특징은 대접, 완, 접시의 기형과 굽의 형식에서 나타난다. 그 예로서 중국 당대 자기의 안정된 모습의 해무리굽 형식이나, 굽이 좁고 오펝하며 동체가 굽에서부터 경사면을 이루면서 구연부로 그대로 올라오는 한국의 전통적인 샷샷 모양의 완의 형태를 꼽을 수 있다.

2) 강진 청자 초기 양식의 특징

강진의 청자는 초기부터 이미 한국화된 양식을 보인다. 이런 경향은,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자기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한국 중부 지역의 자기와는 분명 차이가 있다. 중국 당대 자기 완이나 접시의 해무리굽은, 접지면의 폭이 2cm 이상인 것도 있고, 폭이 1.2-1.5cm로 좁아진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굽이 낮고 접지면의 폭이 넓어 안정된 비례를 보인다. 또 해무리굽 그릇의 경우, 내면에는 원각이 없이 밋밋한 曲面이 대부분이다. 구연부는 동체에서 올라오면서 그대로 밖으로 말아 붙였는데, 중국에서는 이를 玉緣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중국 자기의 특징 가운데 해무리굽은 한국 도자기에서 중국 자기의 영향을 받은 한 요소로 오래 전부터 학계의 관심을 받아왔다. 해무리굽의 발생시기가 곧 한국 자기의 시작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자기에서 해무리굽의 발생시기에 대한 관심과 논쟁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강진 청자의 해무리굽은 전형적인 중국 자기의 그것과는 다르다. 용운리 가마터 9, 12, 28, 29, 32, 34, 36, 37, 38, 52, 63호 등지에서 출토된 해무리굽들을 보면, 그 차이가 확인된다.²⁾ 굽 접지면의 폭이

2) 海剛陶磁美術館, 『康津의 靑磁窯址』, 1992; 국립중앙박물관, 『康津龍雲里靑磁窯址發掘調査報告書』, 1996.

1-1.7cm이고, 굽의 모서리는 각지지 않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도록 깎여 있다. 굽받침은 기본적으로 3-4군데 내화토받침을 사용하였다.

이런 강진 청자의 해무리굽을 익산 미륵사에서 大中 12년(858)명 토기편과 함께 발견된 중국 청자와 백자의 전형적인 해무리굽과 비교해 보아도 강진에서는 부드러운 굽 처리에서 이미 탈중국, 한국화가 상당히 진행된 단계였음이 파악된다. 아울러 내지면이 밋밋한 곡면으로 처리된 중국 자기와 달리, 중앙에 원각이 새겨진 형식도 강진 청자에서는 보편화되었다.

해무리굽의 접지면 폭이 중국 자기에 비해 좁아지고 부드러운 굽깎기 등의 한국적인 특징 외에 기형에서도 한결 부드러워진 면모를 살필 수 있다. 중국 자기에서 시작된 샷샷 모양의 완 역시 강진 청자에서는 긴장감이나 예리한 맛이 줄어들었다. 이는 그릇의 두께, 기면 처리, 유약의 시유 상태 등에서 균일함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국 자기에 보이는 몇 가지 중국 자기의 특징들은 대체로 중부 지역의 가마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강진에서는 초기부터 한국화된 양식적 요소가 나타났던 것 같다.³⁾

도자기의 형식 외에도 청자 유색에서도 고려 청자는 중국 청자에 비해 깊고 그윽한 느낌을 준다. 중국 宋나라의 太平老人이 쓴 『袖中錦』에서 고려청자의 비색을 천하제일로 꼽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고려 청자 고유의 색감은 특히 강진 청자에서 완성되며, 강진 청자는 다시 고려의 翡色 청자로 대표된다. 강진 청자는 초기부터 같은 시기의 한국 내 다른 지역의 청자보다 비색 청자의 단계에 일찍 오른 것이다. 강진 청자가 고려 고유의 비색 청자를 낼 수 있게 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마 안에서 태토와 유약이 잘 밀착되고 용해된 점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과학적인 원인은 유약의 조성분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청자유의 성분에 변화가 생긴 것인데, 이는 티타늄TiO, 산화제이철Fe₂O₃ 등이

3) 김영원, 「統一新羅時代 鉛釉의 發達과 磁器의 出現」, 『美術資料』 62, 국립중앙박물관, 1999. 6; 「강진청자의 도자사적 의의」, 한·중·일 국제 학술발표, 강진군·조선대학교, 1999. 8.

한국 초기 청자에 비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⁴⁾ 한국의 초기 청자는 장석이 주성분이며 고칼슘의 석회유 특성 등에 있어 월주요 청자와 유사하다고 연구자들은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초기 청자에는 유약에 중국 청자와 유사한 철과 티타늄이 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⁵⁾ 이에 비해 강진 청자에서는 철과 티타늄이 적은 대신, 망간MnO₂가 주 발색제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 같은 분석에 따르면, 강진 청자는 유약의 성분에 있어 중국 자기나 한국 초기 청자와도 다른 조합을 보인다. 이처럼 배색 청자유 외에도 기형, 굽의 형식 등 강진 청자는 한국 청자의 대표적 고유성을 갖게 되었다.

2. 강진, 고려 청자의 최대 산지

1) 강진 가마의 성격, 자기소와 관요

조선시대 문헌인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고려시대에 자기를 굽던 磁器所로 강진의 大口所, 七良所를 기록하고 있다. ‘所’는 국가에서 수공업 생산을 위해 특별히 지정한 행정구역을 말한다. 그러므로 자기소는 국가에서 관리하던 ‘자기를 제작하는 곳’을 말한다. 이런 문헌 기록을 근거로 하면, 강진의 대구소와 칠량소는 국가에서 관리하여 왕실과 관청 소용의 청자를 구웠던 관요官窯였음이 분명하다.

강진 가마터에 대한 조사는 일제강점기에 1928년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최초로 실시하였다. 이후 1959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대구면 사당리 堂前마을과 龍雲里 가마터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 대규모로 발굴 조사되었다.⁶⁾ 1992년에는 해강도자미술관 조사단에 의해 지표조사가 실시된 바 있

4) 방병선, 「나말여초 청자 제작기술의 전통적 요소」 중국 청자 제작기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대 한국과 중국의 문화 교류』, 한국고대학회 추계 학술회의, pp. 81-94, 2008. 11.

5) 방병선, 「나말여초 청자 제작기술의 전통적 요소」 중국 청자 제작기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대 한국과 중국의 문화 교류』, 한국고대학회 추계 학술회의, pp. 89-92, 2008. 11.

다.⁷⁾ 현재까지는 대구면 용운리, 계율리, 사당리, 수동리, 칠량면 삼흥리 등지가 조사되었고, 그 수는 총 200개소에 가깝다. 이 가운데 용운리, 계율리, 사당리, 수동리가 史蹟으로 지정되었다.

여기서 사당리, 용운리가 속해있는 대구면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대구소를 가리킨다. 이렇듯 국가에서 편찬한 문헌기록에 기록되었다는 점만 보더라도 강진 일대가 도자사의 경계를 넘어 한국 역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곳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강진 일대를 사적 68호로 지정했다. 그 동안 조사된 가마터는 대구면 용운리 75개소, 사당리 43개소이며, 기타 지역까지 합치면 총 188개소에 달한다. 이 가운데 용운리 39개소, 사당리 30개소가 사적史蹟에 포함된다.

강진 가마의 성격을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로는 우선 명문자료들을 들 수 있다. 명문의 내용을 보면, 중국 연호와 왕비의 능호陵號 등 왕실과 관련된 것들이 주목되는데, 공민왕의 비인 노국대장공주의 능호인 ‘正陵’ (1365-1374), 元의 年號인 ‘至正’ (1341-1367) 등의 명문이 그것이다. 이 외에 간지명干支銘도 발견되었는데, 13세기 후반부터 14세기 전반에 다량 제작된 ‘癸酉’, ‘壬申’, ‘丁亥’ 등이 알려져 있다.

이러한 명문자료를 통해서도 강진 가마는 왕실용과 관청용 청자를 구웠던 자기소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자기소는 국가에서 관리하던 곳이므로 중앙 관청의 감독과 통제를 받는 관요였음도 인정된다.⁸⁾ 이에 덧붙여 중부 일대의 전축요가 호족 세력을 위한 사요였을 것이라는 견해를 수용한다면,⁹⁾ 고려가 왕권을 강화한 후 본격적으로 관요를 운영한 곳

6) 국립중앙박물관, 『康津龍雲里靑磁窯址發掘調查報告書』, 1996. 용운리 가마터 발굴 보고서는 간행되었으나, 사당리 가마터 발굴 보고서는 향후 간행 예정으로 있다.

7) 海剛陶磁美術館, 『康津의 靑磁窯址』, 1992.

8) 김영원, 「康津靑磁의 陶磁史的 意義」, 한·중·일 국제 학술발표, 강진군-조선대학교, 1999; 崔健, 「「干支」銘靑磁의 製作時期와 製作窯」, 『高麗靑磁, 康津으로의 歸鄉』, 강진청자자료박물관, 2000.

9) 김재열,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발굴조사 내용 및 의의」 『고려시대의 용인』,

이 강진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관요’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가마를 의미하며 조선 도자사의 경기도 광주 분원 연구에서 시작된 개념이다. 관요에서는 왕실자기의 제작을 전담했고, 중앙 관청용 자기도 제작했다. 이런 관요의 개념을 고려시대 강진 청자 연구에 도입한 것은, ‘국가의 감독, 관리’, ‘왕실 자기의 제작’이 관요 성립의 핵심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광주 분원과 강진 자기소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도 좋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이다.¹⁰⁾

다시 정리하면, 문헌기록과 그에 대한 해석, 그리고 가마터에서 출토한 중국 연호, 왕비의 능호 등의 명문자료들을 참고할 때, 강진 가마는 자기소였으면서 관요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2) 강진 가마의 구조와 요업시기

시기 문제는 다소 복잡하다. 우선 강진 가마가 언제부터 요업을 시작했는가 하는 것이 현안이다. 요업의 개시 연대 규명에는 청자 양식의 비교 분석 외에도 가마의 구조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수적일 것이다. 근본적으로 가마가 진흙 가마[土築窯]인가 벽돌 가마[塼築窯]인가에 대한 문제에 접근하게 된다. 구조 자체도 중요하겠으나, 그러한 구조가 어느 시기에 축조되고 운영되었으며 수요-공급을 포함한 포괄적인 운영 주체는 누구였는지에 대한 규명이 따라야 한다.

강진은 경사진 면에 갑발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면서 진흙으로 가마를 축조한 진흙 가마[土築窯]였다, 광주박 가마). 중부 지역에서 발견되는 벽돌 가마

용인사·용인문화원, 1998; 오영인, 「고려 전축요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발간 예정), 2008.

이 외에 강진 주변에는 호족세력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가마가 운영되었는데 진흙 가마였고, 이 진흙 가마들은 강진 관요와 달리 사유로서 운영되었다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조은정, 「한반도 남서부지역 토축요 연구; 해남 신덕리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0) 사실 고려와 조선이 시대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관요 개념을 고려시대에 도입한다는 것에 우려감이 생길 수 있겠으나, 관요의 개념에는 앞의 두 요건이 최소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다고 본다.

[博築窯]는 보이지 않는다. 2002년 발굴된 삼흥리 3호 가마터는 해무리굽편이 출토되어 초기 가마에 속하지만, 이 역시 진흙 가마이다. 이처럼 용운리, 삼흥리 등 강진 일대에서는 진흙 가마가 사용되었으며, 벽돌 가마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학계에서는 진흙 가마가 중부 지역의 벽돌 가마보다 늦은 구조라고 인식하는 데 별 이의가 없다.¹¹⁾

그러므로 용인 서리 가마가 9세기 중후반에 개요했다면,¹²⁾ 강진 가마는 그보다 늦은 통일신라 말-고려 초(9세기 말에서 10세기 초)에 요업을 시작했다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중부지역의 요업 경험을 발판 삼아 강진 가마는 곧 고려의 색채가 농후한 청자를 양산하는 단계로 넘어갔을 것이다. 양산하기 시작한 시기는 아마도 10세기 중후반인 광종 연간(949-975)~성종(981-997) 연년이 될 것이다.

강진 가마의 활성화 시기를 왕권이 강화되는 광종에서 성종연간으로 잡은 것은, 두 임금이 강력한 국가 체제 정비에 근거한 것이다. 광종은 공복을 제정하며 대호족세력을 억압하고 과거제도를 실시하는 등 각종 개혁정치를 펴으로써 중앙집권을 강화했다. 그 후 성종은 지방에 남아있는 향호세력을 억제하여 중앙집권체제와 왕권강화를 완성시켰다. 이 같은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는 자기소의 안정적 운영과 직접 관련됨은 두말할 여지없다.

강진 가마의 활성화는 한국 초기 가마인 경기도 용인 서리나 시흥 방산동 가마에서 10세기 중엽이후 11세기에 나타나는 자기의 조질화 경향과는 대조적인 현상이었다.¹³⁾ 그런데 중앙집권체제 및 왕권 강화에 따른 강진 자기소의 부상은, 세련된 청자의 대량생산으로 이어지면서 그 자체가 중부 지역 가마의 쇠퇴에 박차를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11) 김영원, 「강진청자의 도자사적 의의」, 한-중-일 국제 학술발표, 강진군-조선대학교, 1999. 8.

12) 湖巖美術館, 『龍仁西里白磁窯址』, 1987.

13) 중부 지역의 자기 가마[전축요]의 쇠퇴에 대해, 당시 최대 수요자였던 호족 세력의 쇠퇴와 왕권 강화의 시기와 일치하며, 그 시기는 10세기 말-11세기 전반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오영인, 「고려 전축요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발간 예정), 2008.

이상과 같이, 강진 가마의 개요 시기가 나말여초(9세기 말에서 10세기 초)라는 주장은 진흙 가마가 벽돌 가마보다 늦게 요업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반세기 이상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기 때문이다. 이후 강진 가마는 세련기를 맞게 되어 각종 다양한 상형 청자, 비색 청자, 상감 청자 등 한국도자사의 획을 긋는 대표적인 고려 청자를 대량생산했다. 그리고 고려의 쇠망과 함께 軌를 같이 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3. 고려의 왕실 청자와 강진

1) 고려의 왕실 청자

청자에는 불교적인 요소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고려가 불교를 신봉했기 때문이다. 고요하고 차분한 푸른 옥과 같은 유색[釉色: 비색翡色], 보살과 동자 등의 형태, 연꽃과 연봉오리와 연꽃 줄기 등의 장식, 이 모두가 불교와 관련된다. 절터에서도 다량의 청자가 출토되고 있으며, 불교 법구와 사찰의 이름과 용도 등이 표기된 청자들이 전해 오고 있다.

그런데 불교적 문양 장식으로 치장된 청자라 해도 사찰용에 비해 왕실, 귀족관료가 사용한 것들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한다. 이들이 사용한 청자는 매우 세련된 최고급품이었으며, 왕실 무덤의 이름, 관청 이름, 중국 연호 등이 명문으로 새겨진 것도 있다. 어쨌든 최고급 청자의 최대 수요자는 왕실이었다. 왕실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도 있었고, 귀족 관료들에게 하사품이나 중국이나 일본과 교류를 목적으로 한 것 등 그 용도는 다양했다.

왕실자기는 왕족의 무덤과 왕궁터, 왕실과 관련된 사찰이나 유적에서 발견된 자기들을 통해 그 실체가 밝혀진다. 특히 고려 17대 인종(재위: 1123-1146년) 長陵, 19대 明宗(재위: 1170-1197년, 죽은 해: 1202년) 智陵, 21대 熙宗(재위: 1204-1211년 죽은 해: 1237년) 碩陵 등 왕릉에서 출토된 청자는 당대 최고의 왕실 청자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인종 장릉에서는 인종 諡冊과 함께 청동 내함, 석제 외함, 금속제 인장과 은제 손가락과 젓가락, 청자 4점 등이 출토되었다. 이 청자 참외형 병, 뚜껑

달린 청자 합, 청자 사각형 받침대 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청자의 특징은 유색이 반투명에 가깝고 광택이 은은하며 문양이 없다는 점이다. 굽바닥은 유약이 깨끗하게 입혀졌고 가는 규석을 3-4군데 받쳐 구워 비교적 깔끔하게 정리된 편이다. 특히 몸통이 참외형태로 주둥이가 나팔꽃처럼 벌어진 병은 당시 청자의 세련된 아름다움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유사한 청자편들이 사당리 가마터에서도 출토되었다.

또 만월대의 유적에서 수습된 청자 기와들도 당시 대량생산되었던 고급 청자의 일면을 알려준다. 청자 기와들은 가마터에서도 다량 발견되었는데, 표면에 음양각의 각종 당초문으로 장식되어 매우 화려하며 뒷면에 명문이 있는 것도 있다. 그 예로서 강진 사당리 가마터에서 ‘樓西面南’ 즉, 누각의 서쪽면의 남쪽이라는 표시가 음각된 청자 기와편이 발견되었고, 부안 유천리 가마터에서도 ‘癸卯’ 명 청자 상감문 기와편이 수습되었다. 만월대 유적이거나 가마터에서 발견된 청자 기와들은, 『高麗史』 「世家」 毅宗(1146-1170) 11(1157)년 養怡亭의 기와를 청자로 엮었다는 기록을 실물로써 증명해 주는 자료들인 것이다.

청자는 점차 유색과 조형의 변화를 거치게 된다. 유약은 투명해지고 가는 금이 많아지며 여러 문양이 장식되었다. 이런 양식의 변화는, 의종 13(1159)년에 죽은 관료 문공유文公裕의 지석과 일괄품인 청자 상감 당초문 완에서도 뚜렷하다. 이 완의 내면에는 당초문이 역상감(바탕을 상감한 문양)으로 뾰뾰하게 장식되고 청자유는 상감문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투명하다. 이 문공유묘 출토 청자 완은 당대 최고의 청자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왕실 청자의 양식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극초의 왕실 청자로는 명종 지릉(1202년경) 출토 청자 일괄품이 있다. 이 가운데 청자 상감석류당초문 대접을 보면, 측면이 굽에서부터 벌어지고 입가장자리가 약간 안쪽으로 휘어들어간 형태이다. 운두가 높고 기벽이 얇다. 이런 대접의 형태상의 특징은 13세기 중엽 이전에 속하는 것이다. 그 이후에는 청자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투박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초문과 기타 문양들은 도식화의 경향이 짙어 이미 전성기의 전

형에서 벗어나 있다. 따라서 지릉 출토 청자 상감문 대접은 전성기에서 쇠퇴기로 넘어가기 직전의 과도기 양식의 전형이다.

다음으로 지릉 출토 청자 압출양각운학문 완은 전형적인 초기 청자의 형태로서, 굽이 오뚝하며, 굽에서 구연부까지 측부가 삿갓 모양을 하고 있다. 비교적 투명한 청자유가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기벽이 얇다. 그리고 청자 완 내측면에는 운학문이 매우 흐릿하게 압출양각되어 있다.

명종 이후 희종의 강화도 석릉(1237년경) 출토 청자 일괄품들에서도 왕실 청자의 사례를 볼 수 있다. 청자 연판문 대접편, 청자 양각국당초문 대접편,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편, 청자 퇴화문 접시편, 청자 화형 접시편, 청자 잔탁, 청자 뚜껑 등 각종 청자들은, 일부 품질이 떨어지는 것도 있으나, 비교적 유색이 좋고 장식 문양과 제작 수법에서 세련된 양식을 보인다.

왕의 무덤 뿐 아니라 왕비의 무덤에서도 청자가 출토된 사례가 있다. 22대 康宗의 비인 원덕태후(죽은 해: 1239년)의 곤릉과 충렬왕의 어머니이며 24대 元宗의 비인 순경태후 김씨(죽은 해: 1236년)의 가릉에서 출토된 청자 일괄품이 그것이다.

곤릉에서 나온 청자들은 음양각과 상감 등으로 장식된 여러 형태의 청자들로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초의 양식을 보인다. 유약이 고르게 입혀지지 않아 태토가 노출된 예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세련된 편에 속한다. 가릉에서는 희종 석릉에서 나온 청자 퇴화문 접시와 유사한 청자편이 출토되어 좋은 비교 자료가 된다.

이 외에도 왕이 개경에서 南京(현재의 서울)으로 행차할 때 머물던 일종의 숙박시설이었던 惠陰院 터에서도 왕릉 출토품과 유사한 청자들이 출토되었다. 혜음원은 1122년 창건되어 13세기 중엽까지 존속했기 때문에 이 기간에 혜음원에서 사용된 왕실 청자의 일면을 살필 수 있다.

무신정권기에 최씨정권의 후반부에 권력을 장악한 崔沆의 무덤에서 나온 청자 진사채 주자(1257년)는, 왕의 세력을 능가한 당대 최고 권력자가 소유했던 청자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된다. 이 청자 주자는 삼성리움박물관 소장품이며, 같은 시기의 왕실자기에 비해서도 장식이 매우 화려하다. 고려 후반

기의 청자 연구에도 확실한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중국과 교류용으로 제작된 왕실자기로는, 고려왕실에서 원나라에 바친 畫金靑磁에 대한 『고려사』의 기록(충렬왕 15: 1289년, 충렬왕 23: 1297년)과 세련된 금채청자(국립중앙박물관 소장)가 있다.

고려 말의 대표적인 왕실 청자로는 공민왕의 비인 노국대장공주의 陵號인 ‘正陵’ 이 상감된 청자 상감당초문 대접(1365-1374년)이 있다. 노국대장공주가 죽은 1365년부터 공민왕이 죽은 1374년 사이에 왕이 능행할 때 사용한 청자 대접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 왕실 청자의 대표 가마터, 강진

앞에 소개한 바와 같이 여러 유적에서 출토한 왕실 청자들은 일정한 수준 이상의 고급품이다. 이런 고급 왕실 청자는 고려시대 청자를 구웠던 대표적인 가마인 전남 강진과 전북의 부안, 두 곳에서 모두 발견된다. 이에 대해 강진의 규모가 가장 크고 요업 기간도 고려 전시기를 망라하므로 소위 강진 유형이 주변으로 확산되었다는 견해가 학계에 지배적이다.

특히 자기소로 문헌에 분명하게 등재된 강진, 이 곳에서는 왕실 청자를 제작하고 납품했다. 이 때 정기적인 공납과 수시 別燔하여 진상하는 두 가지 형식을 취했을 것이다. 관요였기 때문에 그 의무가 막중했을 것이다.

왕실 청자를 제작할 때 관청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았던 것은 문헌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高麗史節要』 恭讓王 1년(1389) 12월의 사옹원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사옹에서 매년 각 도에 사람을 보내어 내용자기를 監造했는데, 1년에 한번씩 하게 되나...’ 라고 쓰여 있다.¹⁴⁾ 이 기록은 시기적으로 고려가 망하기 직전의 기록이지만, 고려시대 왕실 자기를 조달하는 오랜 관행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귀중한 내용이다. 요컨대 왕실 자기는 ‘司甕’ 의 감독 하에 번조되어 공물로서 상납되었던 것이다.

강진 가마에서는 11세기에 들어서면서 기술의 축적으로 세련된 청자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유색이 아름답고 태토의 입자가 가늘고 조밀하여 단단한

14) 『高麗史節要』 卷 34 恭讓王 1年 己巳 12月 壬寅.

자기로 품질이 향상되었다. 조형적으로 우아한 품위를 지닌 여러 형태의 청자가 제작되었다. 청자 유색의 아름다움은 이미 중국 송에서도 널리 알려졌으며, 청자의 각종 형태에 대해선 송의 사절단의 수행원이었던 徐兢이 쓴 『宣和奉使高麗圖經』에 잘 소개되어 있다. 이 책에는 참외, 연꽃, 오리, 사자 등의 형태를 한 청자 술잔과 향로, 주발, 접시, 탕잔들이 용도에 따라 기술되었다.

『선화봉사고려도경』의 참외형 청자는 인종의 장릉에서 나온 청자 참외형 병 같은 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청자편들이 사당리 가마터에서 출토되었다. 이런 출토품들은 인종 장릉에 부장되었던 최고의 명품 청자 병의 제작 가마가 강진 사당리일 것이라고 강하게 제시해 준다.

특히 강진 사당리 가마터에서는 용이 생동감 넘친 모습으로 음양각된 청자 매병편이 출토되었다. 그 밖에도 운룡문 청자 베게편, 수양버들문 향로, 그리고 목 긴 병, 대접, 접시(각진 접시, 화형 접시 등), 받침대, 잔 뚜껑, 매병 뚜껑, 잔과 받침 등과 각종 요도구들이 대량 출토되었다. 문양은 음양각, 인각, 상감 등의 기법이 보이며, 연판문, 모란문, 연화문, 국화문, 각종 당초문, 수양버들, 운룡문 등의 소재가 사용되었다.

사당리 가마터에서 출토된 청자 파편에서는 중국 연호와 왕비의 陵號 등 왕실과 관련된 명문들이 발견되어 학계의 주목을 끈다. 명문으로는 ‘癸酉’, ‘壬申’, ‘丁亥’ 등의 干支, 중국 元의 年號인 ‘至正’, 노국대장공주의 능호인 ‘正陵’ 등이 있으며, 이 명문들은 각각 상감기법으로 표기되었다.

그런데 공민왕의 비인 노국대장공주는 충정왕 1(1349)년 공민왕과 결혼하여 공민왕 14(1365)년 죽었으므로 공민왕과 결혼생활을 한 시기는 지정연간(1341-1367년)에 해당한다. 그리고 공주가 죽은 후 노국대장공주의 능 이름을 표시한 ‘정릉’ 명 청자가 제작되었다. 이렇게 보면, ‘지정’ 명 청자와 ‘정릉’ 명 청자는 선후관계에 놓인다. ‘지정’ 명 청자와 ‘정릉’ 명 청자(1365-1374년)가 강진 사당리에서 수습되었으므로 강진 사당리에서 왕실 청자가 제작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원래 ‘정릉’ 명 청자는 일제강

점기에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의 능에서도 수습되었다고 한다. 또 앞에서 소개한 ‘정릉’ 명 청자 대접 완형은 좋은 비교 자료가 된다.

4. 강진 가마와 부안 가마

강진 가마와 부안 가마의 관계 즉, 공납자기의 제작 문제, 각각의 수요처, 문헌 기록 게재 여부, 명문자료의 출토 상황, 요업 기간 등등 도자사 연구에서는 학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흥미로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문헌기록에 관한 문제라 함은 무엇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자기소와 관련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고려의 자기소로 강진의 대구소와 칠량소만이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배경에서 강진 가마가 고려시대 자기소로 등재되고 부안 가마는 등재되지 않은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는 『세종실록』 「지리지」의 자기소 139개소, 도기소 185개소에 포함되지 않은 수많은 가마터, ‘기타 요’ 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¹⁵⁾ 그 이유는 필자가 조사한 전북의 가마터만 해도 113군데에서 도자기소로 확인된 곳은 12개소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려의 자기소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등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려시대 자기소에서는 기본적으로 공납 의무와 수시 진상을 위해 청자를 제작했는데, 이는 왕실과 중앙 관청에 자기를 공급했음을 의미한다. 강진 가마에서는 왕실이나 관청과 관련된 명문 청자가 여러 점 출토되었는데, 이에 비해 부안 가마에서는 ‘쑤卯’ 명 청자기와편 단 한 점이 수습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부안 청자의 주된 수요층은 왕실, 귀족 관료, 사찰이라는 사실이다.¹⁶⁾ 이에 따라 필자는 부안 가마가 私窯라는 일부 견해에는 반대 입장이다.¹⁷⁾

15) 김영원, 『조선시대 도자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pp. 86-88.

16) 김영원, 「고려시대 부안 청자 연구」, 미술사논단 22, 한국미술연구소, 2006 상반기.

17) 강진과 부안 가마의 자기소, 관요, 사요 등 운영 체제에 관한 논문들과 고려의

강진과 같이 부안 가마도 공납, 진상 청자를 제작을 일정 부분 담당하여 관요 성격을 내포한다는 필자의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두 가마의 차이는 특히 대외교류 측면에서 나타난다. 부안 가마는 강진 가마와 달리 중국 월요의 영향을 직접 받기 보다는 강진을 통해 받은 것이라고 짐작되는 것이다. 이는 부안 가마가 강진 가마보다 개요 시기가 늦은 점이 일차적으로 고려되었다. 그리고 세련된 청자들은 강진과 부안에서 함께 출토된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므로 강진의 청자 양식이 주변으로 전파되었고 부안에서도 강진 청자 양식을 따랐다는 추정이 가능한 것이다. 무엇보다 요업 시기가 크게 다른데, 강진 가마는 9세기 말 10세기 초~14세기 말로 고려 전시기에 걸치며, 부안 가마는 이미 세련된 청자가 대량생산된 11세기 경~13세기 말 혹은 14세기 전반으로 요업 시기가 강진보다 짧다.

여기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은 것은, 부안 가마의 개시 연대에 관한 것이다. 흥미롭게도 부안 가마의 개시 연대인 11세기 경 역시 중부 지역의 가마의 쇠퇴와 호족 세력의 쇠퇴 시점인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전반과 결부된

소에 대한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北村秀人, 「高麗時代の所制度について」, 『朝鮮學報』 50, 1969; 尹龍二, 「高麗陶器의 變遷」, 『澗松文華』 31, 韓國民族美術研究所, 1986; 鄭良謨, 「高麗陶磁」, 『高麗靑磁名品特別展』, 通川文化社, 1989; 『韓國의 陶磁器』, 文藝出版社, 1991; 徐明禧, 「수공업」, 『한국사』 14 고려전기의 경제구조, 국사편찬위원회, 1993; 徐聖鎬, 『高麗前期 手工業 研究』,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博士論文, 1997; 「高麗 수공업 所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검토」, 『韓國史論』 41-42, 서울대학교 國史學科, 1999; 姜敬淑, 「도자가마터 발굴의 현황과 전망」, 『美術史研究』 12, 1998; 김영원, 「강진청자의 도자사적 의의」, 한·중·일 국제 학술발표, 강진군·조선대학교, 1999. 8; 崔健, 「干支 銘靑磁의 製作時期와 製作窯」, 『高麗靑磁, 康津으로의 歸鄉』, 강진청자자료박물관, 2000; 李喜寬, 「高麗靑磁史上的 康津窯와 扶安窯-湖巖美術館 所藏 靑磁象嵌菊牧丹文「辛丑」銘벼루銘文의 檢討-」, 『高麗靑磁, 康津으로의 歸鄉』, 강진청자자료박물관, 2000; 張南原, 『高麗中期 靑瓷의 研究』, 梨花女子大學校 美術史學科 博士論文, 2002; 김영원, 「고려시대 부안 청자 연구」, 미술사논단 22, 한국미술연구소, 2006 상반기.

장남원은 부안 가마를 강진 가마와 함께 자기소 체제 하에 운영된 貢納窯로 보았다. 필자는 장남원의 견해에 동의하며, 자기소에 관요 개념을 도입하였다. 반면 이희관은 '부안 가마가 黃河寺라는 사찰이 운영하던 私窯' 라고 했다.

다. 이 때는 강진 가마가 전성기로 진입하는 시기이므로 두 가마의 관련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5. 강진 청자와 중국 월요 청자

강진 청자는 초기 양식에서 흔히 중국 越窯 청자와 비교된다. 가마 구조는 강진 가마가 토축요이고, 월요는 전축요로 전혀 다르지만, 기형과 문양 장식 등에서 두 가마의 청자는 기본적으로는 유사성을 보인다. 그럼에도 세부 처리에 차이가 있어, 전체적인 형태나 구도와 표현이 확연히 구별된다. 문양의 예를 들면, 연판문·앵무문·파어문 등에서 강진 청자는 월요 청자에 비해 한층 간략하게 시문되었다.¹⁸⁾ 앵무새와 함께 장식된 화려한 당초문은 강진 청자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조문양의 사용 여부가 자기에 장식성을 가감해 주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강진과 중국 월요와의 관련성을 시사해주는 한 명문 자료가 있어 필자는 이에 주목했다.¹⁹⁾ 중국 寺龍口 越窯址에서 출토된 ‘堂前’ 명 저부편이 그것이다.²⁰⁾ ‘당전’이라는 글자는 굽바닥에 음각되었다. 이 명문편과 동반한 출토품에서는 ‘太平戊寅’ 명(북송 太平興國 3년: 978)이 발견된다. 또 출토 유물과 다른 편년 자료를 양식 비교한 결과, 이 ‘당전’ 명 저부편은 북송 早期(960-1022) 즉, 오월국(907-978) 말에서 북송(960-1126) 전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堂前’ 명 저부편에서 ‘당전’은 대구면 사당리에 청자 가마터가 밀집된 가장 큰 마을인 ‘堂前’ 마을과 같은 글자이다. 이것이 우연인지 필연

18)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北京大學考古文博學院·慈溪市文物管理委員會, 『寺龍口越窯址』, 文物出版社, 2002, p. 64. 도 38-2; p. 65. 도 39-1.

19) 김영원, 「고려시대 부안 청자 연구」, 『미술사논단』 22, 한국미술연구소, 2006 상반기.

20)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北京大學考古文博學院·慈溪市文物管理委員會, 『寺龍口越窯址』, 文物出版社, 2002, p. 131. 도 77-5 ‘堂前’ 명 잔편,

인지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상식적으로 두 가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고려시대 강진 사당리의 당전마을에 살던 사람(운영자 혹은 사기장인)이 중국으로 건너가 절강성 월요에서 요업에 종사한 것. 반대로 중국 월요 일대에 ‘당전’ 과 관련된 곳에 살던 사람이 한반도로 건너와 (요업에 종사하면서) ‘당전마을’ 이라는 마을 이름을 붙이게 된 것.

‘당전’ 명 청자편을 매개로 강진 요업에 대해 중국 월요와 인적, 물적 교류 및 문화적 영향을 추측해 보았다.

강진 청자는 월요 청자 외에도 송대 북방청자를 대표하는 북송 섬서성 銅川市 黃堡鎮에 위치한 耀州窯의 陶范을 이용한 압출양각문, 刻花文(浮彫와 같은 양각문)과 유사하다.²¹⁾ 또 송대 백자의 대명사인 하북성 定州 曲陽縣에 위치한 정요 백자의 물 흐르는 듯한 음양각문과도 유사한 면이 있다.²²⁾ 이외에도 고려 청자의 섬세함과 유색에 대해 절강성 서남쪽의 용천요 청자와 유사하다는 내용은, 중국의 문헌 『格古要論』의 「古窯器論」 과 『경덕진도록』에 전해온다. 고려 청자의 색이 월요 비색越窯秘色 뿐 아니라 용천요 청자의 유색과도 비슷하며, 고려 청자의 섬세한 문양은 정요 백자와 유사하다는 것이 중국인들의 감식 결론이다.²³⁾ 일반적으로 관찰해도 강진 청자 완이나 대접, 접시의 연판문은 용천요 청자의 연판문과 흡사하고, 또 참외형 병, 화형 대접, 완, 잔 등은 정요나 경덕진 백자의 기형과 유사한 점은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강진 청자를 포함한 고려 청자와 중국 청자의 차이를 굳이 설명한다면, 문양 장식의 강약, 자신감과 겸손함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송 자기는 좌우 대칭 형태, 비교적 육중한 무게감을 주며 양각 장식의 경우에도 강하게 돌출해 있다. 반면, 강진 청자와 대

21) 陝西省考古研究所, 『陝西銅川耀州窯』, 1965; 馮先銘·安志敏 외, 『中國陶瓷史』, 中國硅酸塩學會 主編, 北京: 文物出版社, 1982.

22) 김영원,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中國陶磁의 內容과 性格」, 『中國陶磁』, 국립중앙박물관, 2007.

23) 『定窯』, 中國陶瓷全集 9, 京都: 上海人民美術出版社+美乃美, 1981; 藍浦저, 鄭延桂 보집, 林相烈 역주, 『역주 경덕진도록』, 일지사, 2004, 卷 7 古窯考, 附 外譯窯攷 高麗窯.

부분의 고려 청자는 좌우 비대칭 형태, 단정하면서도 강하게 드러나지 않은 장식 문양, 그리고 은은한 푸른 옥과 같은 유색 등으로 인해 겸손하면서도 흐트러지지 않은 기품을 드러낸다. 이것은 강진 청자를 포함한 고려 청자의 대표적인 특징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맺음말 - 조선 초 분청사기의 모태로서의 강진 청자

강진 가마는 진흙 가마로 한국 중부 지역의 벽돌 가마와 조성 재료가 다르다. 이런 가마의 조성과 도자 양식의 차이에서 강진 가마는 나말여초(9세기 말에서 10세기 초)부터 요업이 시작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가마가 활성화된 시기는 광종 연간(949-975)에서 성종(981-997) 연간까지로 잡았다. 그 이유는 이 두 임금이 호족 세력을 정리하고 강한 중앙집권체제와 왕권을 확립했고, 그로 인해 강진 자기소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가해졌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청자는 1231년 몽고의 침입 이후 쇠퇴의 길로 접어들어 강진 가마에서도 쇠퇴기 양상이 점차 본격화되었다. 강진 청자에서 쇠퇴기의 특징적 요소로 13세기 후반기부터 대접, 접시의 명문으로 표기된 ‘己巳’, ‘壬申’ 등의 간지명을 들 수 있다. 이런 간지명은 강진에서 다량 제작되었다. 한 예로 사당리 堂前 가마에서 수습된 ‘丁亥’ 명 청자편(1347)과 원의 年號인 ‘至正’ 명(1341-1367) 청자편은 고려 말 14세기의 강진 청자의 쇠퇴 양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 결정적인 쇠퇴기의 명문은 ‘正陵’ 명이다. ‘정릉’ 명 청자는 노국대장공주의 정릉에서 제사 때 사용되었다고 추측되는 것으로, 그 시기는 노국대장공주가 죽은 1365년에서 공민왕이 죽은 1374년까지다. 그러므로 ‘정릉’ 명 청자는 14세기 후반의 왕실청자로 당시로서는 최고급품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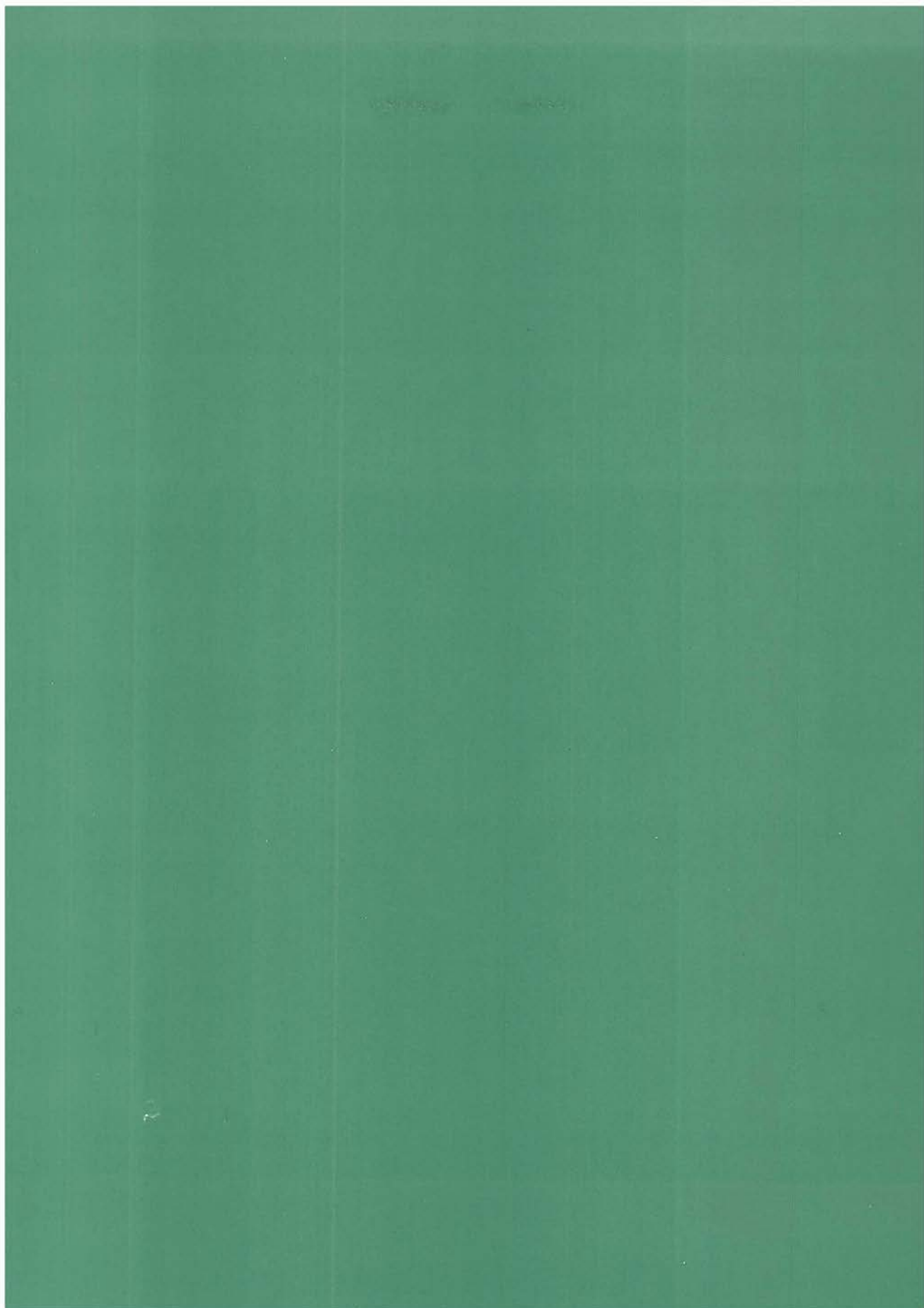
‘정릉’ 명 청자편은 정릉 주변에서 수습된 것도 있고, 강진 사당리 당전 가마에서 발견된 것도 있어 강진 가마에서 왕실자기를 제작, 상납했음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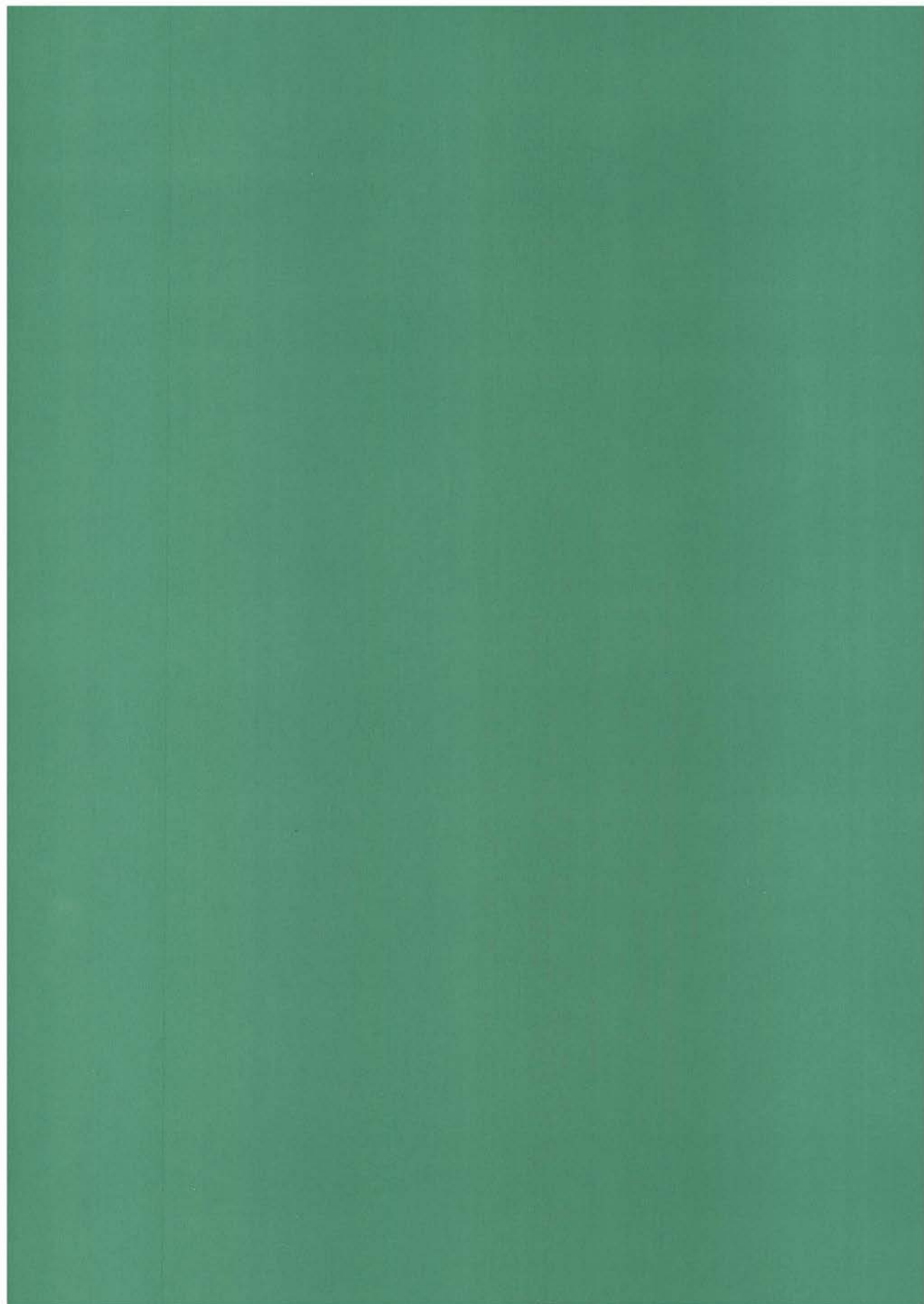
케 해 주는 매우 중요한 편년자료이다.

강진 사당리 출토 ‘정릉’ 명 청자편도 말기 청자의 특징이 뚜렷한 것은, 고려왕조의 쇠망과 함께 국가의 자기소에 대한 관리, 감독 또한 자연스럽게 소홀해진 데 기인한다. 강진 가마에서 화려하고 세련된 청자는 사라졌다. 14세기 중엽 이후 고려는 국가 기강이 문란해지고, 왜구의 잦은 침입에 시달렸다. 이로 인해 서남해안의 가마들은 폐요되었고 강진 가마도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한국 청자의 역사를 대표하는 강진 가마의 廢窯는, 곧 고려 청자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강진의 고려 말 퇴락한 청자들 속에서는 점차 조선의 분청사기로 발전하는 요소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화국화문, 인화여의두문, 인화운문 등 조선 분청사기의 중요한 문양 기법이 사용되었다. 또 상감문은 그대로 지속되었다.

고려 말 청자의 쇠퇴는 새 왕조 조선에서 새로운 도자기인 분청사기로 거듭 발전한 전환기적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강진 청자요지 보존과 강진청자 발전방향

정 양 모(전, 국립중앙박물관장)

I. 서 언

도자기는 인류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밀접한 공예품으로 일류의 생활을 아름답고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풍요롭게 했을 뿐 아니라 공예미술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세계에서 磁器를 제일 먼저 생산한 나라는 중국이며 우리나라가 그 뒤를 이어, 두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우수한 자기를 생산한 나라이며 구미제국과 일본에 팔구백년이나 앞서고 있다. 중국 청자와 질이 우수하고 그 색이 秘色청자로 아름다워진 때는 9~10세기인 唐末五代였으며, 우리나라 청자는 9세기에 시작되어 12세기 전반에 그 질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翡色靑磁를 완성하였다. 우리는 이 자랑스럽고 뛰어난 靑磁文化를 이어받아 이제 우리 文化발전의 소중한 자산으로 영원히 우리마음에 간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름답고 질이 뛰어난 우리 청자를 생산하던 가마터를 영구히 보존관리하여 현재와 미래 우리문화 발전의 큰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간에도 강진뿐만 아니라 전국각지의 요지는 무자비한 개발과 도굴 천연재해 등으로 파괴 일로에 있었으며, 지금 남아 있는 유적이 이 이상 파괴된다면 우리민족의 긍지요 자랑인 우리의 전통 도자문화는 그 뿌리를 영원히 잃게 된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화유산과 문화유적을 경시하고 파괴하는 것은 매국노요 역적인 것이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문화유적 파괴행위를 간과하고 용납해서도 아니 되고 자행해서는 절대로 아니 될 것이다.

Ⅱ. 유적보존 방안

1) 직접대책

① 유적보존

i) 유적지 지정확대와 국가 및 지자체가 공동으로 확대된 토지 구입확보 유적은 지하에 매몰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재해로 훼손이 심하여 원래 지점에서 이탈하여 사방에 흐트러져 있는 유적이 많다. 도자가마 유적은 가마와 퇴적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작업장, 장인 등 관계되는 사람들의 주거지도 중요한 유적이다. 그러므로 가마와 퇴적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그 주위의 넓은 곳을 지정·보존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지정지역을 넓히고 매입한다는 것은 막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중대한 결단을 아니 내리면 영원히 우리는 역사와 국가와 세계에 죄인이 될 것이다.

ii) 새로운 유적지 조사 발견과 보존대책강구

이를 위하여 대구면 뿐 아니라 칠량면과 인근지역도 같이 조사하고 인근의 분청사기·백자 유적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② 유적훼손 방지

i) 자연훼손 방지

폭우·침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적훼손 방지와 보호 대책을 위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것은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ii) 인위적 훼손방지

가. 개발방지

유적은 물론 유적과 이웃한 지역의 개발을 절대 방지하여야 한다. 개발로

인한 직접적 훼손 외에도 거기에 따른 도로 개설 등 토목공사 건축공사로 인한 훼손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며, 개발공사가 완료된 후 수많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 거기서 발생하는 공해와 오물 등이 유적을 훼손하는 것도 역시 명약관하한 일이다.

나. 도굴방지

도굴은 일인(日人)들이 뿌리고간 크나큰 패악으로 강진 대구면 요지의 도굴은 대단히 심각하였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을 것이나 방지 대책이 너무 미온적이다. 도굴방지 기구설치와 인원확보 등 확실하고 꾸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다. 유물채집방지

연구기관과 개인 또는 외국의 호사가와 단체 관광객연구자들이 수시로 방문하여 유물을 채집해 가는데 그 수량이 너무나 엄청나다. 1960년대 70년대 강진 대구면 길바닥 논밭 주택과 그 인근에는 청자 파편이 널려 있었고 가마와 퇴적층엔 상당량이 쌓여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강진에서 단 한편의 파편이라도 채집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관광객·학교단체 연구자 등을 인솔하는 책임자에게 유적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청자파편 하나라도 매우 귀중한 문화유산이므로 무단 채집은 절대 불허한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감시원이 있어 채집행위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2) 간접대책

① 문화유적사랑과 보존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i) 학교교육-유치원·초등교육부터 문화유산·문화유적에 대한 교육을 정식교과과정에 편입시켜 교육함으로써 민족적·국민적 긍지와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에 대한 안목을 높이면 유적훼손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될 것이다.

ii)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교육

교양지면과 교양프로그램 확대 건의, 제작비 지원, 지면과 프로그램제작

지원, 간담회 개최, 화보 홍보, 조사 발굴시 적극홍보, 명품소개 해설 등 다양한 내용으로 흥미유발, 외국청자와의 비교 등 청자에 깃들인 의미·특징소개·감정실습 등

iii) 다양한 학술지와 해설서(도판과 재미있는 해설서)출간

이야기식으로 서술한 책자, 교양서적으로 출간, 만화로 보는 청자이야기 등 출간

한국청자와 중국청자 비교해설서 등 흥미있고 다양한 서적출간, 각급학교·기관단체에 배부, 외국어로 번역·출간 배포

3) 특별대책

강진청자 유적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전라남도, 강진군 등과 협조체제를 갖추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중국에는 청자유적이 수없이 많다. 월주청자유적, 여요청자유적, 남송관요청자유적, 용천 청자유적, 섬서성 요주요 유적 등 수없이 많으나 각 시대별로 전국에 분산되어 있고 아직 조사가 미진한 상태이므로 세계문화유산 등재신청이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강진유적은 9세기로부터 14세기 일부 15세기까지의 유적이 같은 지역 내에 집중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조사도 되어 있을뿐 아니라 그 결과가 보고서로도 일부 간행되고 상세한 지표조사 보고서도 출간되어 있어 앞으로 유네스코 등재위원회 등을 만들어 등재를 위한 자료 홍보자료 등을 보완하면 그 추진이 그리 어렵지 아니할 것이다.

중국청자는 연구활동도 역사가 깊고 활발하여 세계적으로 홍보가 잘 되어 있고 수많은 책자가 각국 언어로 출간되고 있어 세계인의 관심사가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2007년 말에 자유중국 대만 고궁박물관에서 특별전시한 「北宋汝窯特展」은 전 세계에서 찾아온 관광객이 수 만명에 이르르고 特展圖錄이 매진되어 도록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수도 없다고 하나

끝내 구하지 못한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청자요지 지정은 우리가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으므로 우리가 먼저 등재된다면 일거에 세계인의 주목과 관심이 집중되어 중국청자와 우리청자 차별화와 우리청자의 우수함을 세계만방에 크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도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강진 청자유적을 정성껏 보존관리한다면 세계인이 우리 청자유적을 보고 접하고 우리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유네스코 등재는 까다로운 절차와 여러 번의 현지 실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부터라도 준비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Ⅲ. 유적보존을 위한 조사연구와 유물보존 전시

유적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유적의 지속적인 조사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미 지정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자연적인 훼손과 인위적인 훼손이 있다. 훼손되면 으레 가마작업장 등의 유적과 퇴적층의 파괴노출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파괴노출된 유적과 유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복구하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만들고 보존대책을 새롭게 보완하고, 파편들은 수습하여 보관 또는 현지에 매몰 처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사작업은 감시원이나 안내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학예직이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책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

1) 강진청자 박물관의 내실화

① 직제개정·직급 상향조정과 인원확충

i) 현 관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책임있고 능력있는 관장이 여러 가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관장 밑의 간부직원도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관장과 최상위직중 한 사람은 학예직으로 보임하여야 한다. 현재 학예사 1인으로는 이 막중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최소한 학예직 책임과장(학예관)1인과 그 예하에 학예사 3인은 필요하다. 유적의 막중

합과 유적의 성격을 학술적으로 이해하고 세계도자사에서 우리청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학예직 여러 명이 있어야 한다. 이들은 유적상태 점검조사, 자료작성과 유물처리, 수시 지표조사로 새로운 가마유적 발견과 파편 수집, 일반전시·특별전시와 홍보, 수집된 유물을 조사연구하여 사진자료(영상자료와 인화자료작성)작성, 이를 카드화하고 이에 대한 분류작업, 학술지 발간, 세미나주관, 청자박물관 이외의 국내외 박물관의 청자유물조사, 외국 박물관과의 교류 등 여러 분야를 각기 책임을 지고 나누어 실행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ii) 청자박물관의 위상 제고

세계적인 청자유적에 청자박물관이 있다는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다. 중국 섬서성에는 요주요 박물관이 있고, 강서성 경덕진, 절강성 자계 등지에도 박물관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방문하고 중국 청자와 백자의 연구·홍보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강진청자박물관은 9세기부터 15세기에 이르는 청자 발생기로부터 초기 분청사기에 이르는 모든 가마가 집중되어 있는 세계에서 가장 장기간에 걸쳐 제작된 가마유적과 청자자료를 조사보존·전시·홍보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이런 박물관의 소장자료와 유적·전시, 조사 업적 등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전시·교류 연구인원 교류 등 다양한 청자사업을 전개하면 청자박물관의 위상뿐 아니라 우리 청자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우리 청자와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적 역량을 드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청자박물관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업무

조사·전시·자료작성·세미나 개최 외에도 각종 책자 발간 및 기념품 등의 판매를 위한 흥미있는 작품개발·전시실과 진열장과 진열장내의 디자인·조명과 과학적인 유적 조사와 보존 등을 위하여 이 방면의 전문 인력과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최신기자재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iv) 조사연구 등 제반 업무의 확장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2) 강진 청자작업실에 대한 협조와 지원

청자박물관의 학예직들은 청자작업실에서 훌륭한 작품을 제작하기 위한 각종자료를 제공하고 조형·문양·유약·태토·번조 문제 등을 서로 협력하여 이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자박물관 자료는 물론 국내 각 박물관, 미술관, 개인소장유물과 국외의 자료들을 조사 분류·정리하여 항상 새로운 지원과 협조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사업은 산학협력과 같은 것이다. 강진청자박물관의 조형·역량 등이 강진청자박물관과 협조함으로써 크게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직접지원으로서는 강진청자의 실물자료 완형과 파편자료를 가지고 작업실 직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강의 등으로 우리 청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증진시킨다. 또한 중국청자(영상·사진자료)와 비교하여 설명함으로써 우리 청자의 특징을 부각시켜 우리 청자의 독특하고 독창적인 아름다움에 뿌리를 내린 청자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V. 청자박물관과 청자발전 방향

지금과 같은 강진청자 축제는 강진읍내에서 하고 대구면 사당리 현장은 유적과 환경보존을 위하여 청자박물관을 존치시켜 조용한 유적지로서의 품위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청자박물관(청자촌)만 존치하여 박물관과 협력함으로써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1) 청자박물관의 내실화

① 직제개정(직급 상향조정과 인원확보)

i) 박물관장과 직원들의 직급상향

박물관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청자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모든 조형성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인사를 보임하고, 예하직원도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작업에 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냥 옛것을 비슷하게 모방만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똑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키워서 똑같은 것도 만들고, 다시 거기서부터 무엇을 만들지를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배워서 현대인에게 현대생활에 필요한 청자를 만들어야 한다. 현대인은 매우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생활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최대 공약수를 추출하여 거기에 맞는 조형을 만들고 한발 더 나아가 현대인의 생각과 생활공간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앞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야 할 것이다.

② 박물관의 확장과 전문부서별 세분화

청자박물관의 기구를 확충하고 세분화하여 각기 전문부서별로 세분화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i) 태토와 유약, 가마축조와 번조상태 연구

태토와 유약의 연구는 명품청자 파편 자료의 분석으로 시작하여 그 분석치대로 태토유약을 조합하여 만들어 보고 그 결과와 고려명품청자를 비교한다. 이 작업은 수 십년 이어왔지만 성공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한다. 그러나 꾸준히 하되 보다 과학적인 실험에 더하여 자연적인 실험과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고려명품의 태토와 유약 속에 들어있던 무기질과 유기질들은 번조 후에도 무기질은 거의 그대로 남아있겠지만 유기질과 특별한 무기질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고 타서 없어지거나 기화해서 날아간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분석 치에서 나온 것 이외에 옛날 태토와 유약에 들어갈 수 있었던 자연 소재를 찾아내어 첨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실험을 수 십 년이고 수 백 년이고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 그러면 그중에서 의외의 특별하고 아름다운 결과가 나와서 청자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청자는 환원번조가 대 원칙이다. 중국에서는 벽돌로 가마를 쌓아 합리적으로 가마를 축조한다. 우리나라는 중서북부지방에서 초기에 벽돌가마를 썼으나 벽돌가마는 얼마 안 있어 사라지고 벽돌가마를 흙가마로 변경

시켰으며 남부에서는 처음부터 흙가마로 시작하였다. 그래서 중국 秘色과 다른 天下第一인 우리의 翡色을 완성하였다. 그러므로 실험적으로 벽돌가마와 흙가마를 동시에 운영해 보고 상호 보완시정할 부분을 발견해나감으로써 翡色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외에 불을 때는 방법, 봉통불과 곁불의 시간조절, 나무의 선택, 환원불을 때는 시점의 선택, 가마 막기의 방법에 따라 천차만별로 변화하는 양상을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작성하여 미묘한 변화를 알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ii) 조형(형태와 문양)의 연구개발

앞에서도 약간 언급하였지만 유약, 태토와 함께 매우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형태를 만들고 때론 거기에 어떠한 문양(장식과 문양)을 붙이고 시문하느냐에 그 미감이 전혀 달라지므로 여기에도 수많은 연구 실험이 각별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형과 문양을 연구 개발하는 전문기구나 인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디자인에 종사하는 인원은 고전을 깊이 이해하면서도 창작창조 정신에 투철해야 한다. 우리 청자의 조형정신과 조형감각에 현대의 조형정신을 불어넣어 양자가 혼연히 어울려져 하나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우리 청자 뿐 아니라 중국청자도 일본의 에도시대 청자도 참고하여 우리만이 나타낼 수 있는, 그들과 차별화된 독창적 조형(형태와 문양)을 만들어내야 한다.

iii) 청자박물관의 협력과 유대강화 및 외부의 특별자문

훌륭하고 현대적 청자를 만든다는 것은 말로는 쉬워도 실제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미의 본질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래서 청자박물관에서 조사, 연구,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를 이용하여 수 십 년이 소요되더라도 꾸준하고 정력적으로 수많은 도면을 만들어내고 우수한 안목을 지닌 학계, 미술계 인사의 자문과 협조를 받아 취사선택을 하고 또 수정을 받을 것이 있으면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택된 도면을 가지고 실제 작품을 만들어 보고 완성된 작품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자인 개발 연구자와 청자박물관의 학예직이 하나가 되어 서로 존중하면서 협조하되 파격적인 발상의 전환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

계와 미술계에서 어떤 사람의 자문과 협조를 받아야하는 지를 신중하고 투명하게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사람의 역량과 안목을 자로 잰 듯이 객관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적 친분이나 근시안적으로 자문인을 위촉한다면 백해무익한 것이 되어 오히려 강진청자 사업을 크게 그르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지금까지의 청자사업을 돌아보고 투명하게 전부를 공개하고 내보여 칼날같이 엄격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파격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발상의 전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주제만 가지고도 여러 학자와 디자인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수많은 시간에 걸쳐 토의하고 제작해보고 개선해 나가보고도 어려운 것이다.

중국 청자에는 일반적인 회색태토도 여러 가지이지만 흑태청자도 있고 백태청자도 있다. 태토와 유약이 월주, 북송여요, 남송관요, 용천요가 모두 다르지만 이들 명품청자에서의 유약은 모두 환원번조이다. 이외에 소위 북방청자에서는 산화번조로 청자이면서 갈색을 머금고 있으나 그중에서 황실에 보내는 것은 특별하게 다르다.

이와 같이 중국청자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종다양한 청자를 제작하였다. 우리 청자는 신라 말기부터 고려시대까지 시종일관 회색태토에 환원번조의 비색유약 청자를 완성하기에 전념하였다. 중국과 같은 백태청자도 없고 흑태청자도 없고 북방청자와 같은 갈색청자도 없다. 단지 조선시대에는 초기에 백태청자가 있고 백태에 청자와 백자유약을 동시에 시유한 것 다시 말해 발상의 전환이 있다. 그러므로 회색태토에 환원, 翡翠色으로 일관한 우리청자의 기본정신을 지니면서 백태와 흑태를 같은 기형에 이용해 본다든지 유약도 북송여요식, 남송관요식, 용천요식을 우리의 기형에 시유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 사업이 어려운 것은 우리 청자의 명품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특히 밝은 빛에 확대경으로 들여다보면 고화도에서 자화되었으면서 숨같이 부드럽고 특히 낮은 양각이나 반양각의 경우 칼끝의 움직임과 태토가 연출하는 부드러움은 이루 형언할 수 없다. 결국은 그런 맛을 알아야 명품을 생산 할 수 있는 기본이 갖추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깊은 맛이 우리청자의

명품에서 느끼는 자연스러움과 부드러움이다. 다시 말하면 고려 전통의 회태 청자지만 상품과 하품 등 시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12세기전반의 명품과 같은 청자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또 한가지 예를 든다면 백자와 청자가, 분청과 청자가, 흑유와 청자가 같이 어울어 진다면 또한 고려기형과 조선조의 기형이 어울려진다면, 또는 현대적 조형과 이들이 어울려진다면 어떤 조형이 이루어질까? 필자는 몇 사람의 작가를 지도하면서 이러한 발상의 전환을 시도하여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

iv) 뛰어난 경영자의 참여

이러한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고 이 박물관이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이 박물관을 총괄하는 뛰어난 경영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영인은 대외업무와 예산 확충과 효율적인 기관 운영 등에 전념하고, 가마제작, 가마운영, 태토유약 문제, 청자의 조형 등 학술적이고 미술적 업무에는 가능한 관여하지 말고 충심으로 아름다운 청자를 만드는데 충실하고 열정적인 지원과 후원자로서 남아야 할 것이다.

V. 결 론

우리가 국내는 물론 세계를 지향한다면 우선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우리만이 나타낼 수 있는 차별화된 독특하고 독창적인 조형을 창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세계인이 보고 참으로 아름다운 청자인데 중국 청자도 일본청자도 아닌데 과연 어느 나라 청자인가하고 감탄할 때 그 청자가 높은 가치와 작품성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적절하고 유효한 홍보 전략이 수립되지 않으면 아니 되고 많은 사람들과 박물관·미술관과 시장을 파고드는 판매 전략이 없다면 빛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